건축사 2014 August

건축사 544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4 08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예레반!
건설공사 안전관리, 설계자에게도 책임이…

KOREAN ARCHITECTS

KOREAN ARCHITECTS 544

글. **김창길**_ Kim, Chang-gil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건설공사 안전관리, 설계자에게도 책임이…

Security Management at the Construction Sites, Designers are Responsible for, Too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4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리체계는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에서 설계 · 착공 · 시공 · 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Design for Safety : 설계 · 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영국)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한다.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한다. 착공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제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시공단계에서는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파트너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 당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신고 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의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

경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창우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쌓았다. 주요 작업으로는 번동 글로리타워, 부산 락앤스티치공장, 박순용정형외과, 춘천감정리주택, 화성 조암리주택 등이 있으며, 2011 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2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2012 신진건축사상을 수상한 바 다.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새로운 안전체계가 대다수의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실제로 높이 1.5m 작업대에서 추락해도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규모 현장도 건축사인 감리자의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건축사로서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예방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건축사협회 또한 국토교통부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새로운 체계에 대한 빠른 대응이 촉구되며, 지금도 공사 중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시공사에서 착공 시 안전관리 계획서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의 서류를 제출하나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사가 건축물의 안전 및 시공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세월호 사고, 마우나리조트 사고, 아산오피스텔 붕괴사고 등 잇단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형 사고 이후 부모님들이 국가에 바라는 바람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람과도 같다고 본다. 이렇듯 우리 건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글. **이화자**_ Lee, Hwa-ja
여행작가 겸 여행테라피스트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예레반!

Yerevan, The beauty of Armenian Gold

전 세계 80여 국가를 여행했으며, 저서로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가'에 대한 아포리즘을 담은 〈여행에 미치다〉와 개인의 심리적 상황에 맞는 여행지를 추천하는 〈여행처방전〉이 있다. 여행이 이 세상에 살며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가장 어메이징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행갈 때가 되면 내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낸다. 나의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 불필요한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난 다시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느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있는 아르메니아. 이름도 생소한 나라로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알면 알수록 깊고 슬프며, 지난한 역사 속에 인두처럼 새겨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80개국을 여행한 내게도 손꼽힐 만큼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 원고청탁을 받고 어떤 나라를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아르메니아가 떠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 여행 중에 난 종종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여행기를 올리곤 하는데, 건축사인 한 페친('페이스북 친구'를 줄인 말)이 내가 올린 건축물과 십자가상에 첨예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한국과 아르메니아 사이에서 그곳의 건축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나눴고, 그것이 나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했다.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Caucasus) 3국(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중에서도 경제발전이 가장 느린 나라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로, 예수를 찌른 창을 소장하고 있는 나라이자 노아의 방주 전설이 깃든 아라랏산이 있는 나라이며, 수도 예레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들의 정착지 중 하나다. 20개 이상의 박물관과 아르메니안 골드 사암으로 만든 정교한 건축물, 현대적 아름다움의 결정체라 불리는 건축물 캐스케이드(Cascade)가 어우러져 있어 규모는 작아도 도시 자체가 아름답고도 고색창연한 박물관이라 할 만하다.

소비에트 시절 레닌 동상이 있어서 한때 레닌광장이라 불렸던 공화국 광장은 전체적으로 타원 모양인데, 불그스름한 금빛이 나는 건물들은 하늘에서 아르메니아 전통 러그가 내려온 듯한 느낌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예레반의 중요한 건물과 교회는 아르메니안 골드라는 사암으로 만들어져서 도시 전체가 통일된 느낌을 준다. 사암은 따로 페인트칠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도 조도와 조명에 따라 다른 컬러를 띠며, 세밀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새기기에 아주 좋아서 예레반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주는 일등공신 같았다. 이웃나라 조지아(그루지아)가 세계 최초의 와인생산지로 유명하다면 아르메니아는 브랜디(꼬냑)로 유명한데, 아라랏트 브랜디 회사의 건물 또한 사암으로 만들어져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벽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마치 레이스를 뜬것처럼 섬세하다는 '아르메니안 돌십자가(Crossing Stone)'를 탄생시키는 배경이었을 것이다.

1937년 건축 디자인 대상을 받았다는 오페라하우스도 무척 아름다웠지만 예레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바로 캐스케이드 콤플렉스(Cascade Complex)였다. 론리플래닛(국가별 여행안내서적)에 캐스케이드라고 나와 있어서 지리학적으로 독특한 지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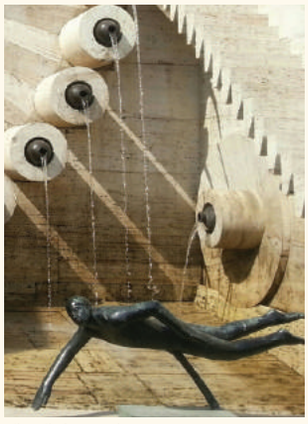
있는지 궁금했던 곳은, 알고 보니 소비에트연방 가입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계단식 현대 건축물로, 1991년 독립하면서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 카페스티안(Gerald L Cafesjian)에 의해 완성된 거대한 문화공간이자 전망대다. 꼭대기에서는 예레반 시내를 조망할 수 있으며, 2차대전 참전 기념탑과 아르메니아의 어머니(Mother Armenia) 동상을 내려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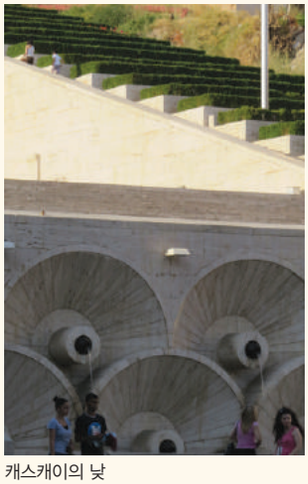
캐스케이드는 무척이나 근사하지만 낮 동안 내리 쬐는 직사광선과 더위로 도저히 걸어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여행자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계단 좌측에는 카페스티안센터가 있다. 이곳을 통하면 에스컬레이터로 편하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층마다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 굳이 힘들이지 않고도 각층별 전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센터 내부도 외부처럼 각층마다 독특한 아트웍(artwork)을 전시해놓고 있으며, 공연장과 갤러리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아르메니아 문화의 핵심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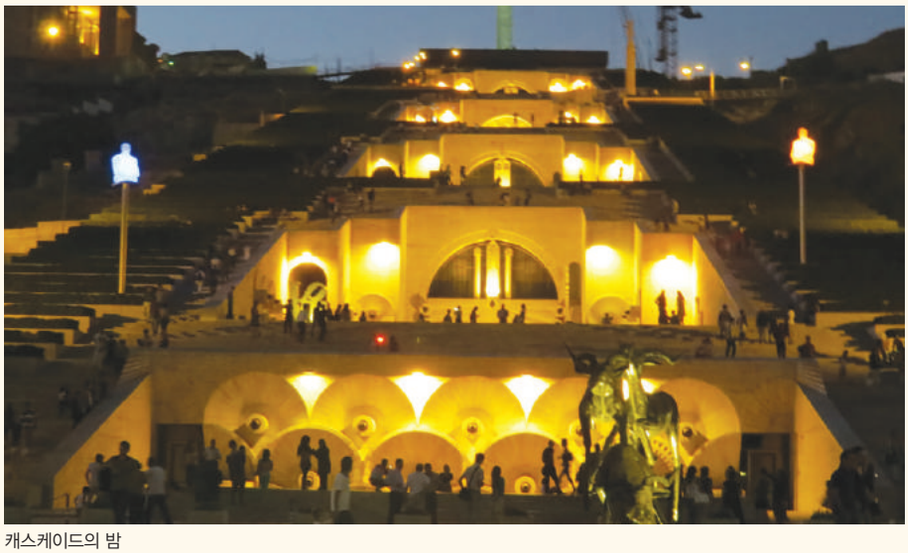
기세등등하던 태양도 기가 죽을 무렵이 되니, 캐스케이드 전체에 일제히 조명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시원함을 찾아 모여들고 밤의 캐스케이드는 낮과는 또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해준다. 센터 앞에는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즐비하고 바로 앞 공원에는 캐스케이드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카페스티안의 컬렉션인 보테로(Fernando Botero Angulo)의 조각들도 전시되어 있어 휴식의 즐거움을 더한다.

내가 여행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다. 눈앞에 명소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순간의 바람과 공기를 접선하는 순간들 말이다. 귓가엔 이국의 언어들이 춤을 추고 난 진실로 “이 세상에 살면서 딴 세상을 경험하는 황홀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아르메니안 돌십자가


케스케이드 조각


캐스캐이의 낮


캐스케이드의 밤

글. 송준환_ Song, Jun-hwan
동경대학 특임연구원

민간개발 유도를 통한 공공공간 정비와 도시구조 개편의 실현

Utilization of Private Development for Public Space Organization and Urban Restructuring

"도로 상하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유도"

일본 동경은 초고층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동경의 주요 3구인 치요다구(千代田区) · 츄오구(中央区) · 미나토구(港区)의 2012년까지 완공된 6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은 총 462동인데, 이 중에 2000년대 들어 완공된 빌딩은 230동으로 약 48.8%를 차지할 정도다.[1] 1991년 버블경제 붕괴 속에서 도시개발이 정체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정책과 함께 도시재생특별지구 등 초고층 개발을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정부(행정)에의 의존이 아닌 지권자들의 조직화를 통한 사업실현, 그리고 초고층 단일건물로서보다는 군(群)을 이룬 복수의 건물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치요다구의 마루노우치(丸の内)지구, 아키하바라(秋葉原)지구, 츄오구의 하루미(晴海)지구, 미나토구의 록본기(六本木)힐즈, 시오도메(汐留)지구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번 2014년 7월에 오픈한 모리빌딩(森ビル) 부동산 개발회사와 약40여명의 지권자의 협의 속에서 완공된 「토라노몬(虎ノ門ヒルズ)힐즈」[2]는 같은 초고층빌딩이지만 또 한번 진화한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부터 도입되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는 개발부지 내 공개공지의 면적비율로 용적률 완화를 받아왔던 종래의 제도(종합설계제도 등)와는 다르게 '외부 공헌'이라는 명칭 하에 개발부지 외의 공공공간(도로 또는 지하연결통로 등)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는 제도다. 이로써 행정의 역할을 민간에게 위임하여 질 높은 공공공간의 정비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토라노몬 힐즈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간선도로를 민간부지 내로 관통하게끔 하여 2020년 동경올림픽으로 발생할 도심부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연안부(남부)와 동경 북부를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동경의 도시구조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토라노몬힐즈를 관통하는 간선도로 진출입구 및 상부광장

■ 제도의 활용을 통한 도시만들기의 실현_ 입체도로제도, 특정건축자제도

토라노몬 힐즈의 가장 큰 특징은 초고층 빌딩 내부로 간선도로가 관통한다는 것이다. 간선도로구역은 종전 직후인 1946년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도로정비 사업지구였으나, 지가가

높은 도심부에 위치한 것과 지권자가 많은 것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다. 이는 1989년 창설된 「입체도로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로의 구역을 입체적으로 정하고 필요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도로 상하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간부지 내에서도 도로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제도는 「특정건축자제도」인데, 시설건축물의 건축과 유보연면적의 처분을 시행자를 대신하여 다른 자(특정건축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특례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과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력적인 공간 창출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이룰 수가 있다. 즉,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동경도가 2009년에 「특정건축자」 공모방식에 의해 모리빌딩이 채택, 관민일체형 도시만들기가 실현되었다.

■ 토목기술과 건축디자인의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

상업, 컨퍼런스, 오피스, 주택, 호텔, 주차장 그리고 '녹지'와 '도로'를 혼합하여, 콤팩트시티의 수직형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토라노몬 힐즈는 고도의 토목기술로 건물 아래 지하터널을 뚫었는데, 이를 유연하게 건축디자인과 연동하고 있다. 건물 진입구부터 지하터널이 상승하면서 지상부로 관통하게 되는데, 빌딩 저층부의 레벨을 상승하는 터널레벨에 맞추어 부드럽게 변화시키면서 간선도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부의 스탭가든과 내부 아트리움 로비공간은 계단식으로 독특함을 자아내며, 내외부의 녹지공간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연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상부로 연결되는 간선도로 진출입구의 상부공간에는 약 6,000㎡의 녹지광장공간이 조성되어 이벤트와 각종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타워의 중심부에서부터 역삼각형으로 잘려진 듯한 입면 디자인은 간선도로의 중앙 분리대와 만나는 타워 남측 외주기둥을 드러나게 하여, 수직적 경관형성과 함께 주위의 시선을 끌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노톤을 기조로 한 수직라인과 투명한 파사드는 건물의 생동감을 자아내며, 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지붕은 바람막이 등 광장의 이용 및 활용 증진뿐만이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서 랜드마크적 역할을 돋보이게 한다. 이렇듯, 토라노몬 힐즈는 품고 있는 간선도로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적 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디자인을 시도하였고, 도시의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3]

■ 동경의 샹제리제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에리어매니지먼트

사업은 초고층 빌딩의 완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하터널 상부의 가로공간을 더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2013년 7월부터 에리어매니지먼트 준비회를 설립, 본 가로를 「동경의 샹제리제 거리」로 칭하고 가로공간의 이활용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카페거리 등의 사회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토라노몬힐즈 외부전경(좌)과 저층부 내외부 공간모습(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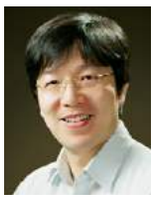
1) 出口 敦, 宋 俊煥외 2명, 群化する超高層の時代 : 超高層建築の動向から見る21世紀初頭の東京都心, 日本都市 計画学会 City planning review 63(1), pp.10~15, 2014

2) ① 설계 : 니혼설계(日本設計) ② 부지면적 : 17,068.95㎡ ③ 건축면적 : 9,390.76㎡ ④ 연면적 : 244,360.27㎡ ⑤ 층수 : 지하5층~지상52층 ⑥ 구조 : 철골조 일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 ⑦ 공기 : 2011년 4월~2014년5월

3) 日本 新建築 2014年 7月号 pp.118~129

회원작품.

탄현동성당
Tanhyun-dong Catholic Church



설계자 | 안우성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공간체계연구소와 이로재 승효상건축연구소를 거쳐 2001년부터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대표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설계 튜터를, 이화여대에서 건축법규 강의를 맡고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 우먼피아여성병원, 파스칼진빌딩, 양익재,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계획안, 겸재정선미술관 계획안, 박학재, 안양대학교 브릿지네트워크빌딩, 올림푸스사옥, 대구무역회관 등이 있다. 2003, 2007, 2010년 경기도 건축문화상, 2007,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2007년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금상, 2009~2010년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상, 2009년 서울특별시 건축상, 2013년 인천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설계팀 : 김남희, 이응금, 신승호, 권혜진, 박은상, 박진욱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미래에스디지
  - 기계설비분야 : ㈜세아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조은기술단

건축주 | 재단법인 천주교의정부교구 유지재단
감리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시공사 | ㈜한건종합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4-2
주요용도 | 종교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1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22.59㎡
연면적(Gross Floor Area) | 2,727.7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8.24%
용적률(Floor Area Ratio) | 120.06%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점토벽돌 치장쌓기, THK18/24 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6 ~ 2012. 0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12 ~ 2013. 10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eong-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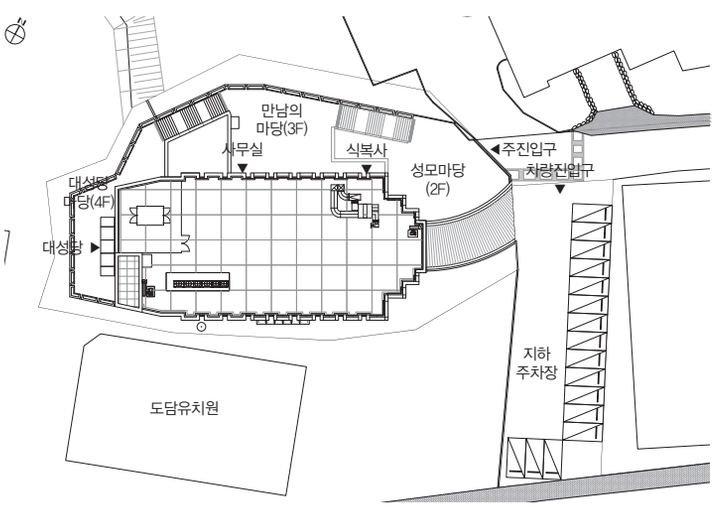
Client | Roman Catholic Diocese of Uijeongbu
Architect | Ahn, Woo-sung
Project team | Kim, Nam-hee / Lee, Eung-keum / Shin, Seung-ho / Kwon, Hye-jin
Park, Eun-sang / Park, Jin-wook
General Contractor | Hankun Construction co.,Ltd
Location | 114-2, Tanhyeon-dong, Ilsanseo-gu, Goyang-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Structure Engineer | Mirae SDG Inc.
HVAC Engineer | Seah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Joeun Engineering Co.,Ltd
Finishing | Brick, THK18/24 Pair Glass

〈종교건축〉
일상의 공간과 종교적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나의 종교건축은 시작되었다. 즉 종교인의 사고와 행동은 일반인과 달라야 하며, 종교적 공간이 갖고 있는 성스러움은 일상의 공간과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종교적 공간은 시간적 · 공간적으로 준비하여 진입할 수 있는 전이공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도하는 공간보다 사교의 공간이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조〉
대공간을 최상층에 배치하게 되면 직하층에 배치되는 실들은 건물의 폭이 넓어 무창실이 생기기 쉽다. 본 성당도 본당의 폭을 최대화하다 보니 교리실이 세 겹으로 배치되었는데, 교리실을 인공환기하는 것은 경험상 문제가 많아 본당 직하층들에는 건물폭을 줄이게 되었다. 따라서 기둥의 위치가 변화되어 구조적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외형적으로는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구조를 갖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둥의 한 층은 사선으로 계획하여 힘을 전달하였다.

〈외형〉
설계경기 초기에는 고딕성당에서 볼 수 있는 알코브(Alcove)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없어지고 말았다. 본당층의 창문은 외벽에서 한 켜 들어와 형성되어 강렬한 남측의 빛과 은은한 북측의 빛을 균일화하도록 하였고, 본당 하부의 사제관 교리실 등에는 비교적 큰 창을 설치하였다.

〈재료〉
주변이 모두 콘크리트 외벽의 아파트, 화강석의 교회, 샌드위치패널의 마트로 둘러싸여 있어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의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였고, 단일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무게감을 더하였다. 본당의 내부재료는 전벽돌을 사용하여 종교적 공간이 되도록 하였고, 벽돌쌓기도 다양화하여 음향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강당, 교리실복도, 성체조배실, 만남의 방의 재료도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결정하되 종교건축이 가져야 할 소박함, 순수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 위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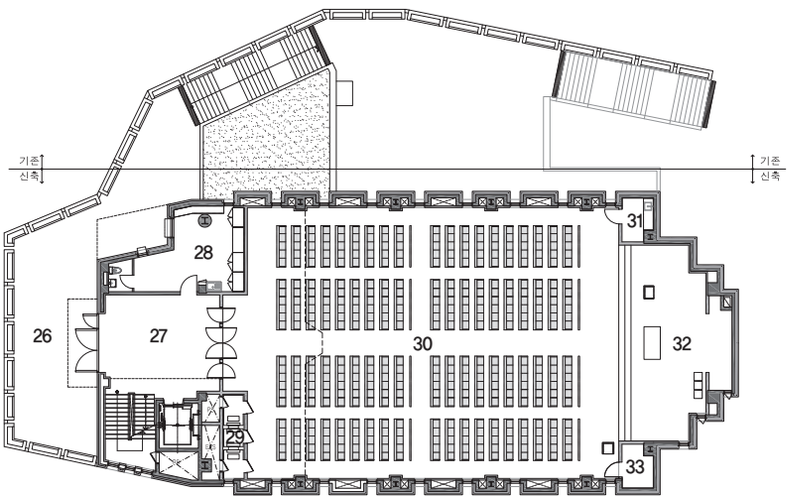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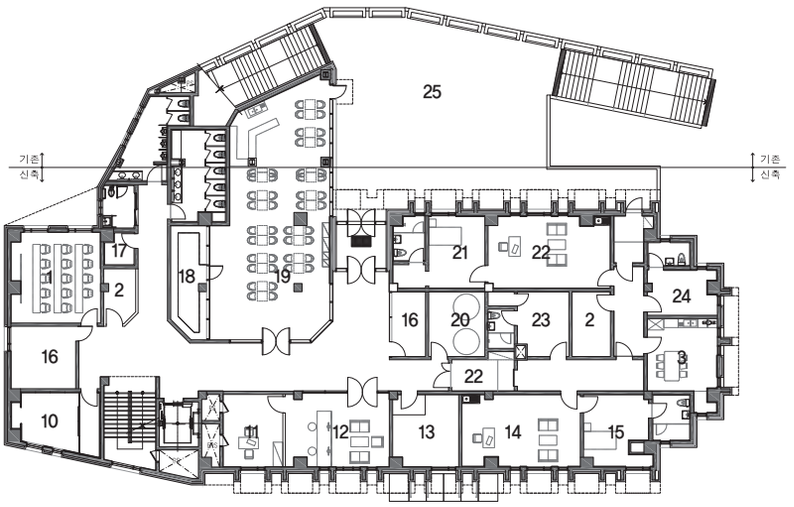
전경

만남의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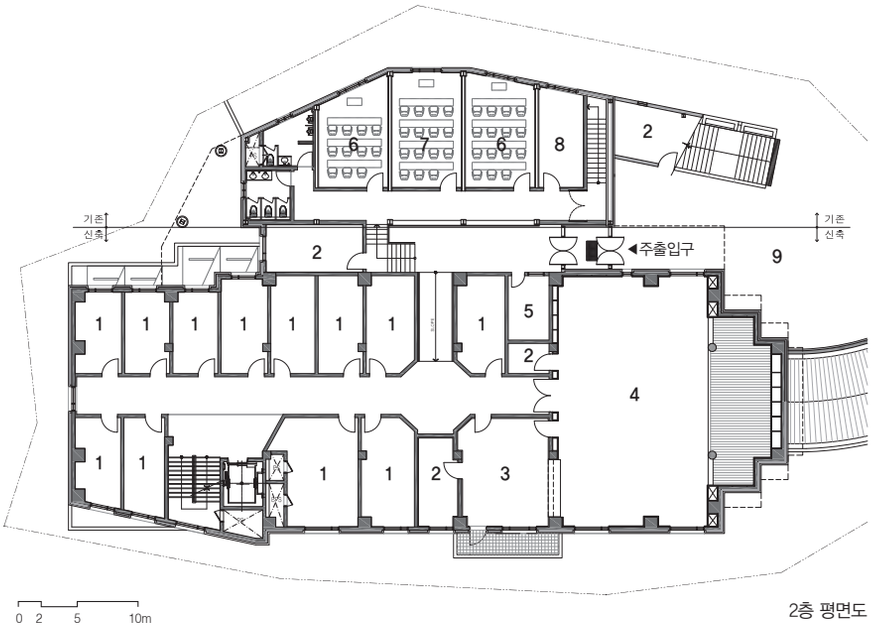
1. 교리실
2. 창고
3. 주방
4. 강당
5. 관리실
6. 초등부교사실
7. 중등부교사실
8. 단체사무함 비치실
9. 성모마당
10. 성체조배실
11. 문서고
12. 본당사무실
13. 다목적실
14. 주임신부 거실
15. 주임신부 침실
16. 면담실
17. 세탁실
18. 성물방
19. 만남의 방
20. 보일러실
21. 부주임신부 침실
22. 부주임신부 거실
23. 손님 신부실
24. 식복사실
25. 만남의 마당
26. 대성당 마당
27. 홀
28. 제의실
29. 고해소
30. 대성당
31. 제구실
32. 제대
33. 음향실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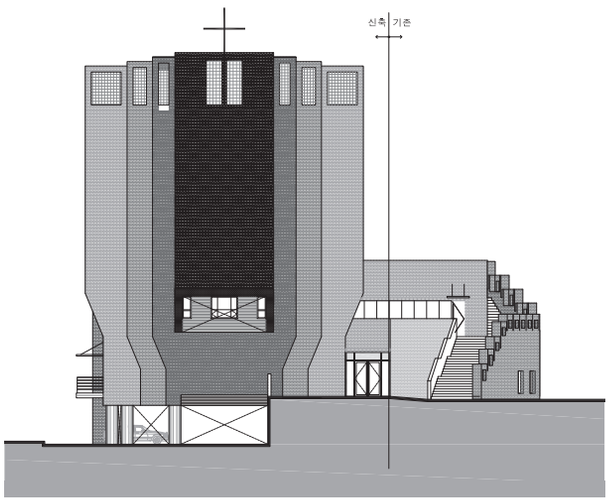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대성당

만남의 방

교리실 복도

성체조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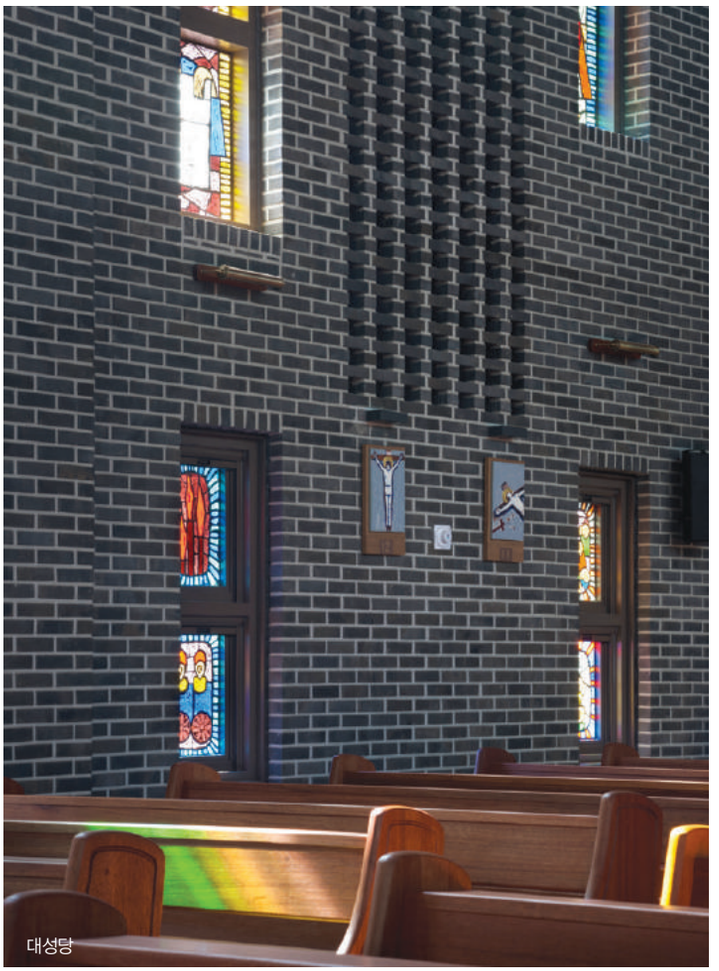


0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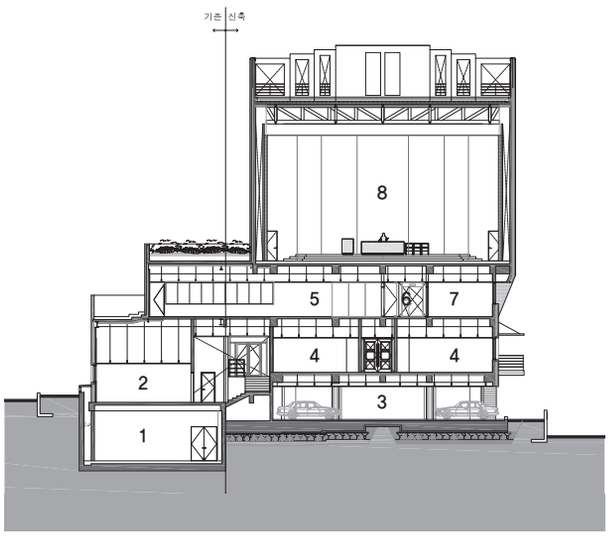
동측면도

남측면도

대성당 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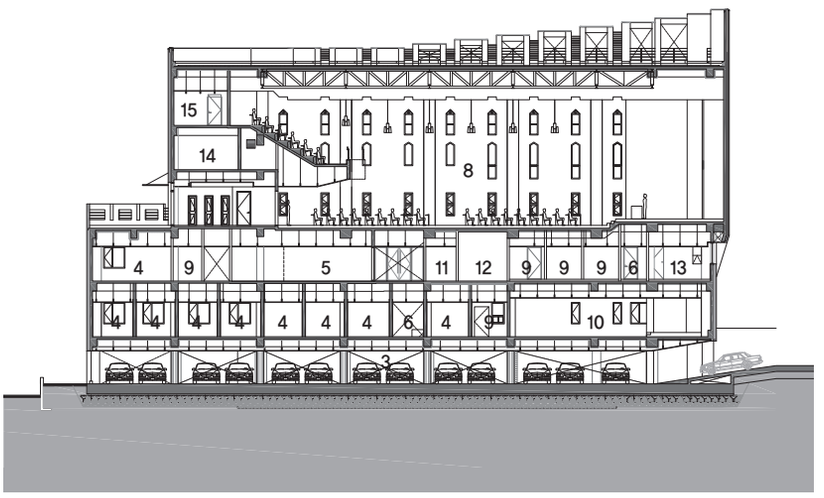

대성당

1. 기계실 2. 중고등부 교사실 3. 주차장 4. 교리실 5. 만남의 방 6. 복도 7. 본당사무실 8. 대성당
9. 창고 10. 강당 11. OA ZONE 12. 보일러실 13. 식복사실 14. 전례부실 15. 홀



0 2 5 10m

종단면도



횡단면도

회원작품.

부항댐 물문화관 & 관리센터

Buhang Dam Water-Culture Center & Management Center

설계자 | 이병철_KIRA | ㈜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1965년 서울생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청담동 스폰지빌딩, 소양강댐 물문화관, 경북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 학생기숙사, 용인아르피아, 포은아트홀, 용연문, 경인아라뱃길 통합센터&여객터미널, 일산 정수장관리센터, 천안 한들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경기도건축문화상과 인천광역시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설계팀 : 엄경배, 성용훈, 김나경, 안승규, 최종문, 이관호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은구조
  - 기계설비분야 : 청우이엔지
  - 전기분야 :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토목분야 : 진성이엔지

건축주 | 한국수자원공사

감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부항댐건설단

시공사 | GS건설

대지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산44번지 외 3필지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물문화관), 제1종근린생활시설(관리센터)

대지면적(Site Area) | 물문화관 6,826.00㎡, 관리센터 8,62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물문화관 843.45㎡, 관리센터 882.56㎡

연면적(Gross Floor Area) | 물문화관 1,348.02㎡, 관리센터 1,790.1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물문화관 12.36%, 관리센터 10.23%

용적률(Floor Area Ratio) | 물문화관 16.35%, 관리센터 17.10%

규모(Building Scope) | 물문화관 지하1층 ~ 지상4층, 관리센터 지하1층 ~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티타늄 아연판, 커튼월, 고밀도합성목재, 화강석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5 ~ 2011. 01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11 ~ 2013. 12

사진(Photographer) | 박승현(Park, Seung-hyun)

Client | K-WATER

Architect | Lee, Byung-chul

Project team | Om, Kyong-bae / Sung, Yong-hoon / Kim, Na-kyoung
Ahn, Seung-kyu / Choi, Jong-mun / Lee, Kwan-ho

General Contractor | GS E&C.,Ltd.

Location | San44, Dogok-ri, Jirye-myeon, Gimcheon-si, Gyeongsangbuk-do, Korea

Structure |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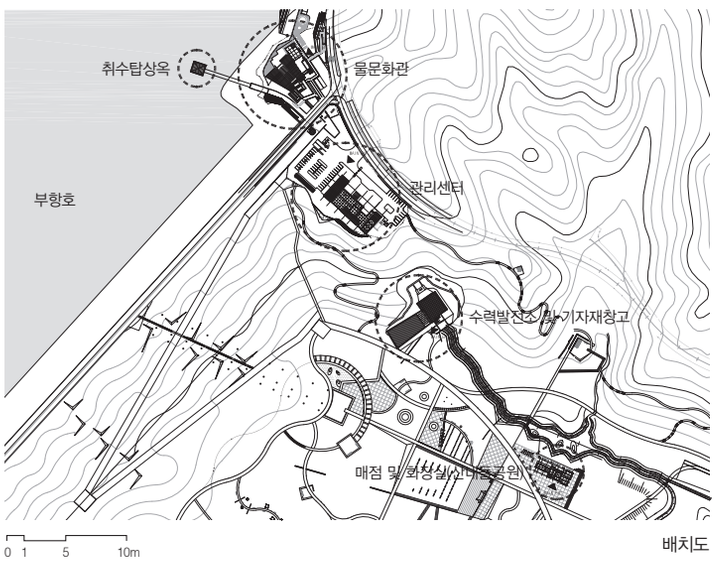
Structure Engineer | Eun Structural Co.,Ltd.

HVAC & Engineer | Sangjin Eng Co.,Ltd.

Electrical Engineer | Chungwoo Eng Co.,Ltd.

Civil Engineer | Jinsung Eng Co.,Ltd.

Finishing Materials | Titanium-Zinc Panel, Curtain Wall,
High-Density Artificial Timber, Granite Stone



배치도

물문화관 및 관리센터 전경

부항댐은 낙동강 지류인 김천시 감천의 홍수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계획된 댐으로, 본 프로젝트는 경상도를 아우르는 분수령인 대덕산과 덕유산, 지리산을 연결하는 교류지대에 위치한다.

물문화관은 부항댐 관리센터 인근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건물이다. 건축물의 지역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김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뜻하는 '삼산이수(三山二水)'를 따 '삼산이수관'이라고도 한다.

또한 관리센터로부터 이어오는 연결광장과 필로티 계획으로 부항댐의 동선흐름을 유지했다.

2층은 상설전시실 · 기획전시실(지역 커뮤니티센터)로 구성되어 주민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부항호에 떠 있는 돛단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독자적인 심미성을 지닌 입면구성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했다. 최상층에 위치하는 전망대는 부항호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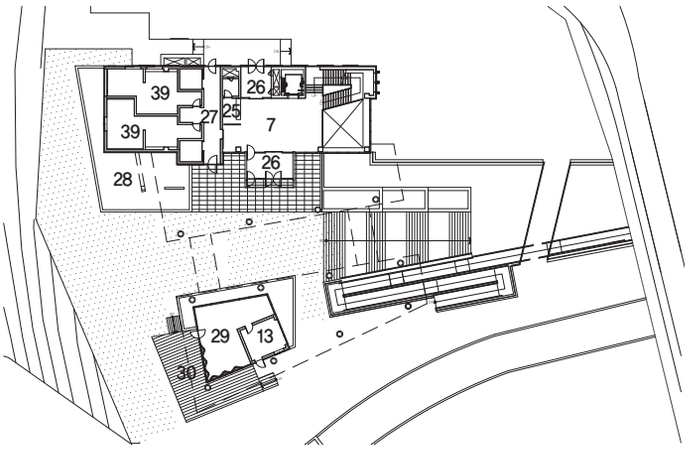
부항댐을 관리하는 관리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주변 산세와 조화된 경사지붕과 커튼월 계획으로 시설물 관리 및 전망을 용이하게 했으며, 평면계획은 근무공간, 편의공간, 방문자 공간의 조닝으로 공간의 합리성을 고려했다.

물문화관 및 부항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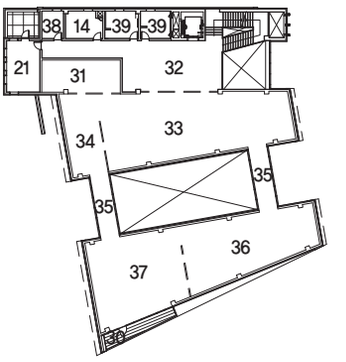
관리센터 및 댐마루 전경

관리센터에서 바라본 물문화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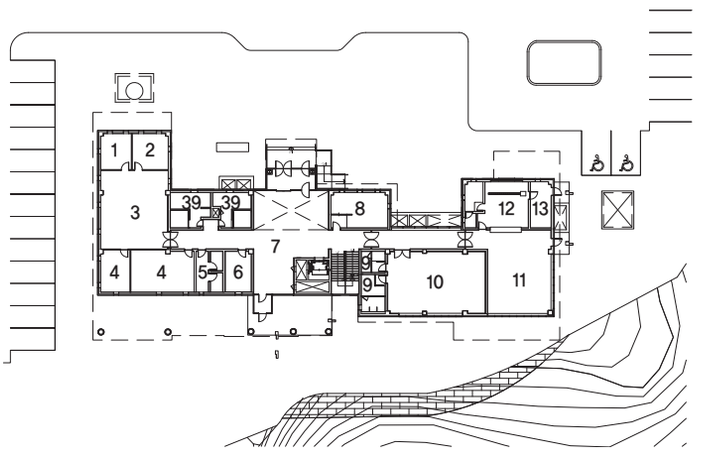
1. 시약실
2. 미생물실험실
3. 시험실
4. 기자재창고
5. 무기고/탄약고
6. 휴게실
7. 홀
8. 숙직실
9. 샤워실/탈의실
10. 체력단련실
11. 식당
12. 주방
13. 창고
14. 장비실
15. 중앙제어실
16. 상황실
17. 구내통신실
18. 준비실
19. 단장실
20. 전실
21. 사무실
22. 회의실
23. 탕비실
24. 자료실
25. 안내
26. 방풍실
27. 복도
28. 수공간
29. 매점
30. 데크
31. 영상홍보실
32. 홍보홀
33. 주전시실
34. 체험실
35. 연결통로
36. 유물전시
37. 특별전시
38. 다용도실
39.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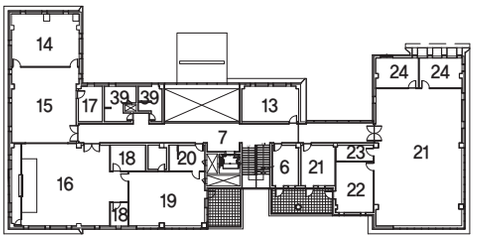
물문화관 1층 평면도



물문화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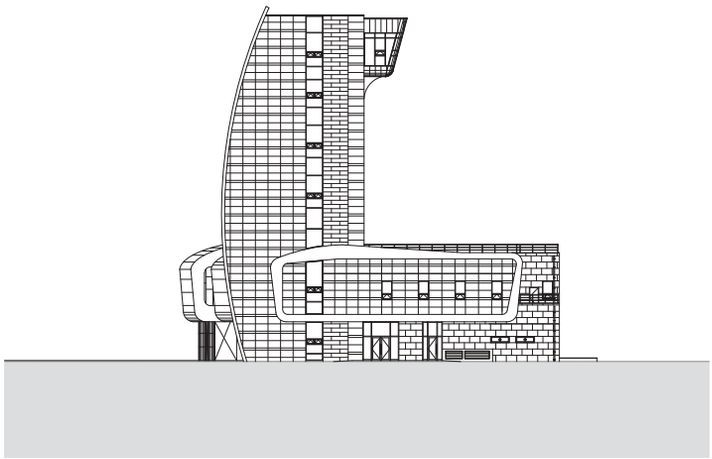


관리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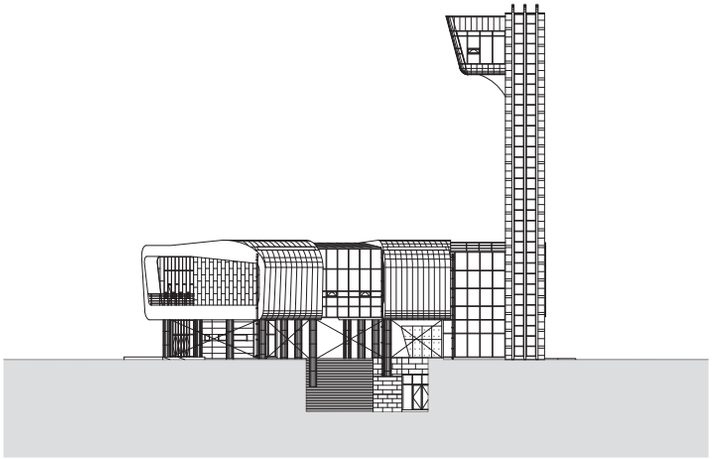


관리센터 2층 평면도

물문화관 외부 및 2층 연결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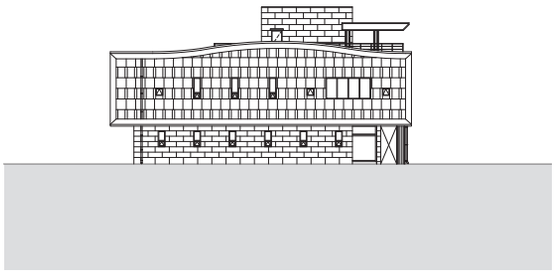


물문화관 정면도



물문화관 좌측면도

관리센터 정면도



관리센터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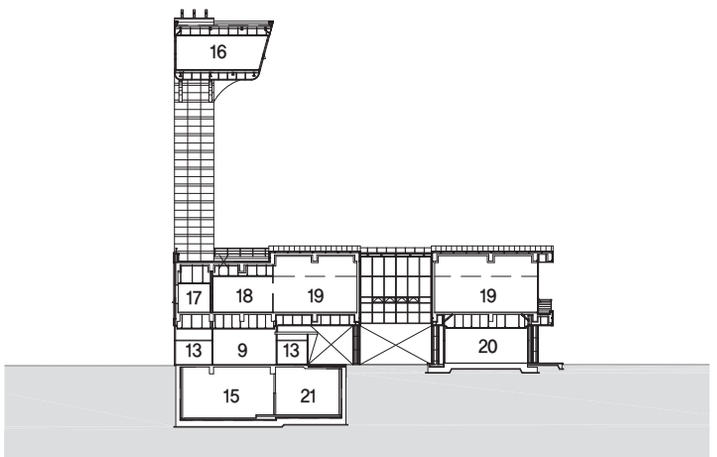
0 1 5 10m

물문화관 연결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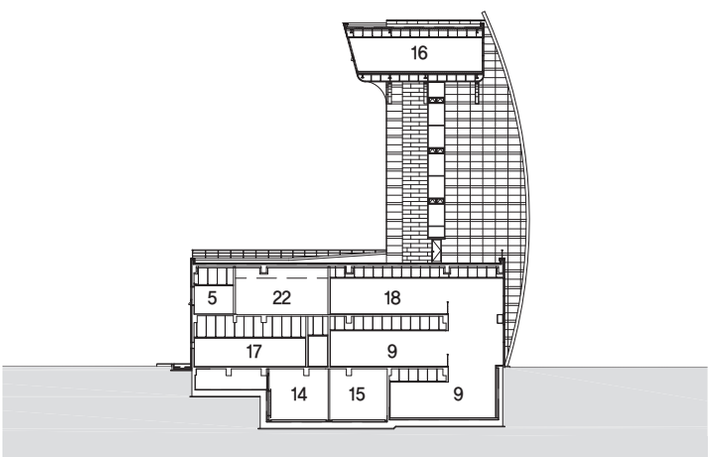
전망대 내부 전경

물문화관 주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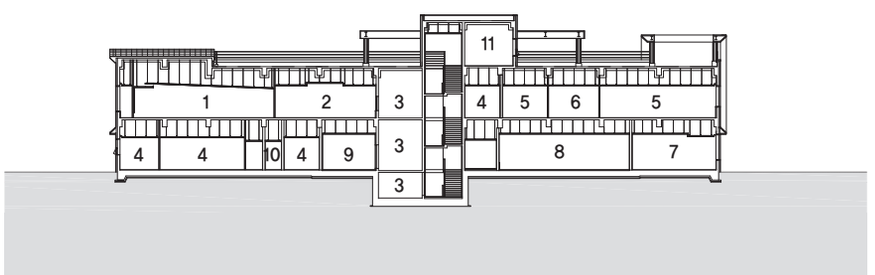
1. 상황실 2. 단장실 3. EPS 4. 휴게실 5. 사무실 6. 회의실 7. 식당 8. 체력단련실 9. 홀 10. 무기고/탄약고 11. 창고
12. 전실 13. 방풍실 14. 물탱크실 15. 기계실 16. 전망대 17. 화장실 18. 홍보홀 19. 전시실 20. 매점 21. 전기실 22. 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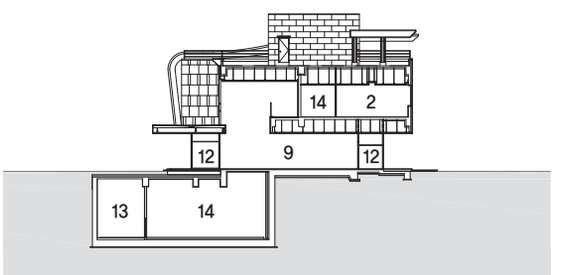
물문화관 종단면도



물문화관 횡단면도



관리센터 횡단면도



관리센터 종단면도

0 1 5 10m

회원작품.

대정요양병원

Daejung Care Hospital

설계자 | 권연하_KIRA | ㈜건축사사무소 우림A&C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건축사사무소 우림A&C를 공동 설립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UIA총회 서울유치실무위원, 신공항건설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건축문화진흥을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건축의 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설계자 | 민영만_KIRA | ㈜건축사사무소 우림A&C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3년 ㈜건축사사무소 우림A&C를 공동 설립하였다. 2009년 전라북도건축문화상(준공부문 대상), 경기도건축문화상(입선)을 수상하였고, 주요작품으로는 중부지방 국세청, 한강 PRADIA, 한림병원, 하늘스포츠병원, 양지병원 등 다수의 병원이 있다.

- 설계팀 : 송인석, 유정경, 구기운, 오은석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세현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대유엠이씨
  - 전기분야 : ㈜다우티이씨

건축주 | 의료법인 명일의료재단

감리자 | ㈜한미글로벌

시공사 | ㈜공간종합건설, ㈜플랜잇웍스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69-2외 1필지

주요용도 | 병원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7,18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301.5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8.12%

용적률(Floor Area Ratio) | 54.20%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화강석(사비석잔다듬), 적벽돌치장쌓기, 적삼목각재, T-22 로이투명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4 ~ 2012. 07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2 ~ 2014. 01

사진(Photographer) | 민영기(Min, Yeong-gi)

Client | Medical Coporation Myeongil Medical Foundation

Architect | Kwon, Youn-ha / Min, Young-man

Project team | Song, In-seok / Yu, Jung-kyung / Koo, Ki-woon / O, Eun-seok

General Contractor | THE SPACE Construction Co.,LTD

Location | 69-2, Jigyeong-ri, Sangwol-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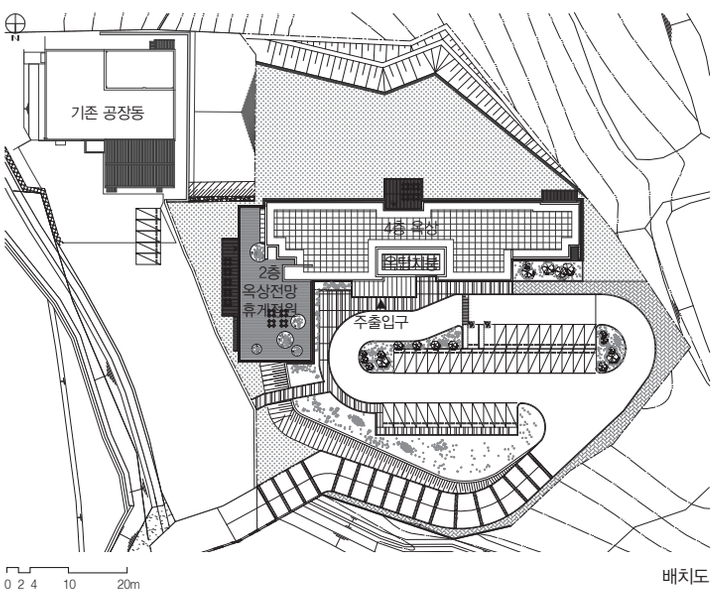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SEHYUN Structural Engineering

HVAC Engineer | DAEYOO MEC

Electrical Engineer | DAWOO TEC

Finishing Materials | Granite Stone, Red Brick, Low-E Glass



배치도

전경

대정병원은 1,612명의 아름다운 기부에 의해 만들어진 병원이다.
의료봉사의 한계를 넘어 소외된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모시고자 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행복한 노년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병원을 찾게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집이어야 한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내 집 같은 병원, 모두가 가족이 되어 함께하는 병원 설계를 시작하며 가졌던 소박한 바램이었다.

대지는 나지막한 산자락의 끝에 자리한다. 남쪽으로는 너른 들이, 동쪽으로는 멀리 계룡산이 병풍처럼 감싸안고 있다. 부정형의 대지에 건물을 동서로 놓아 북쪽은 주차장과 진입부로, 남쪽은 정원으로 분리하였다.

계룡산 조망을 위해 검진센터의 대기공간을 창쪽에 배치하고 상부는 외부휴게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모든 병실을 남향으로 하고 거실과 방의 개념을 도입, 각 병실 앞에 화장실, 주방, 수납장이 있는 전실을 설치하여 쾌적한 치유공간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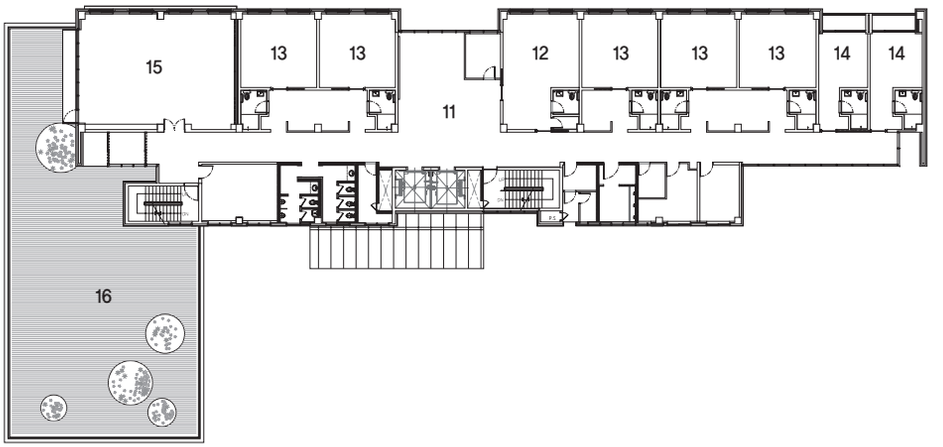
외부재료는 적벽돌, 사비석 잔다듬, 적삼목각재를 고유의 물성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

ㄷ자형태의 적벽돌은 환자를 가족처럼 따뜻이 감싸안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아픔이 사랑이 되고, 함께함으로 행복한, 하나 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대정병원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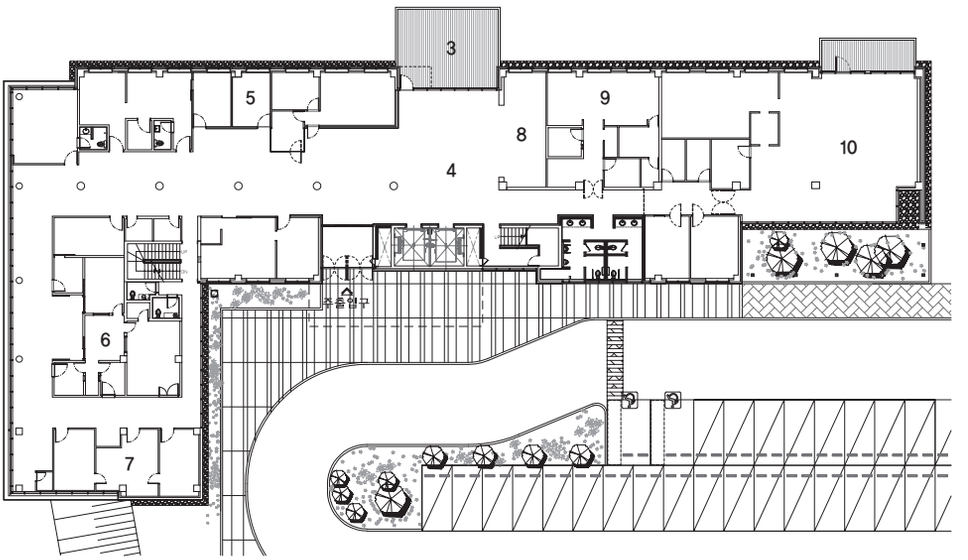
주차장과 진입로가 배치된 정면

자연과 어우러진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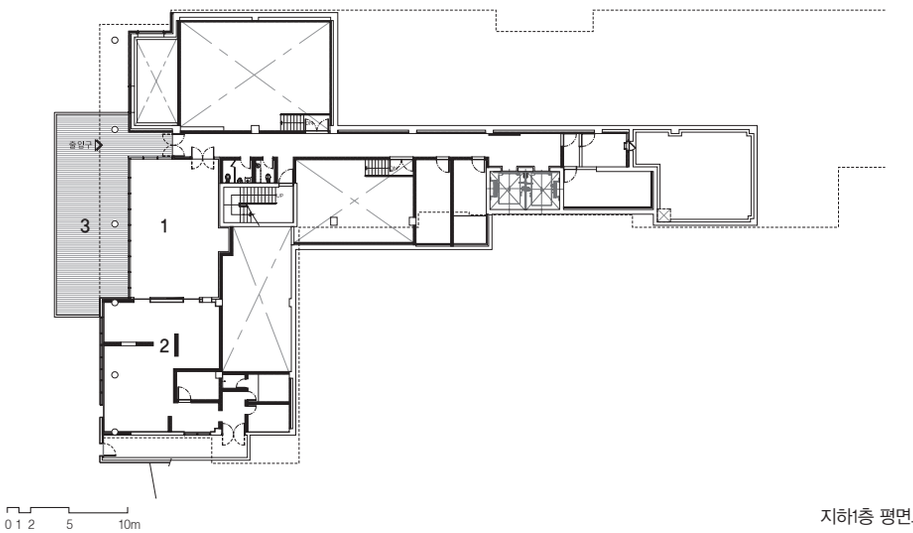
1. 식당
2. 주방
3. 휴게데크
4. 메인로비
5. 가정의학과
6. 건강검진센터
7. 한방진료센터
8. 카페
9. 치과센터
10. 물리치료센터
11. 스테이션
12. 중환자실
13. 6인실
14. 2인실
15. 다목적홀
16. 옥상휴게정원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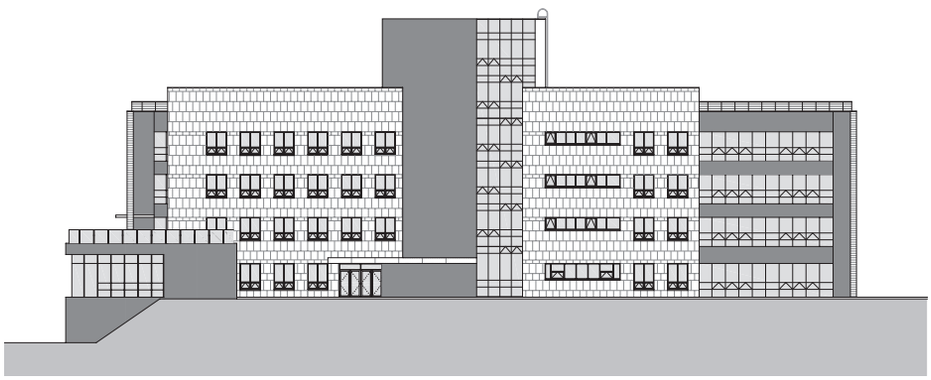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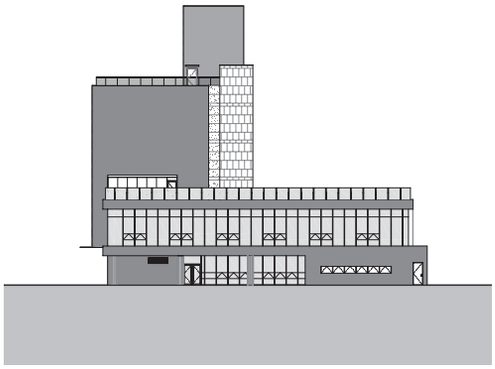
풀잎정원에서 본 전면부

건강검진센터 대기홀

병동 휴게홀


0 1 2 5 10m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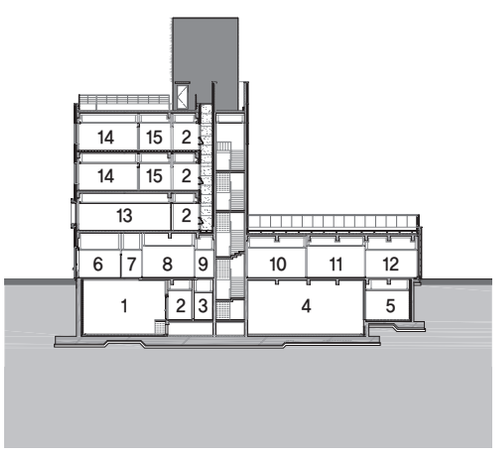
1층 안내데스크

병실스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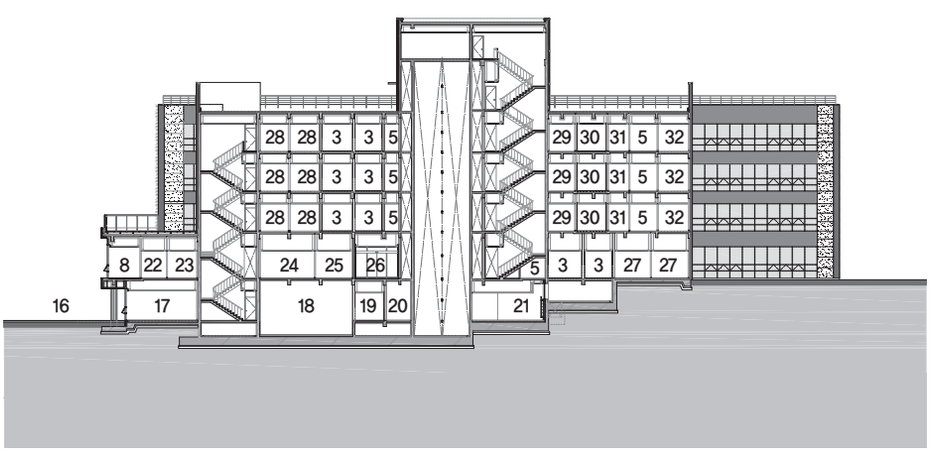
병실복도

2인실

1. 전기실 2. 복도 3. 화장실 4. 저수조 5. 창고 6. 내시경실 7. 세척실 8. 대기홀 9. 락커 10. CT촬영실
11. 검진센터 12. 한방치료실 13. 다목적실 14. 6인실 15. 전실 16. 외부데크 17. 식당 18. 기계실 19. 세탁실 20. 의료가스실
21. 감시제어반실 22. 내진실 23. 진료실 24. 임상검사실 25. 주사실 26. 방풍실 27. 작업치료실 28. 게스트룸 29. 탕비실 30. 목욕실
31. 수거실 32. 당직실



종단면도



횡단면도

0 1 2 5 10m

회원작품.

대한성공회 강화읍교회 교육관

Annexe Building of Ganghwa-eup Church,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설계자 | 신춘규_KIRA/AIA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해 서울시 건축정책위원, 코이카 건축전문위원,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아임삭 오창공장(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잠실 청호빌딩(2008 서울시건축상 본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국제현상설계 최우수상), 연세대학교 스포츠센터(2012)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유홍, 은동우, 최원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이공구조
  - 기계설비 : ㈜대유엠이씨
  - 전기분야 : ㈜다우티이씨
  - 토목분야 : ㈜다산엔지니어링

건축주 |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감리자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대건토건(손수근)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347 외 2

주요용도 | 종교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65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91.28㎡

연면적(Gross Floor Area) | 937.4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83%

용적률(Floor Area Ratio) | 75.09%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 : 노출콘크리트(송판/합판), 선형 인조석 붙이기,
알루미늄 단열바(24mm 복층단열유리)
내부 : 고급 천연페인트, 투명에폭시 코팅,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4 ~ 2013.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6 ~ 2014. 03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oung-chea)

Client |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Architect | Shin, Chun-gyu

Project team | Kim, You-hong / Eun, Dong-woo / Choi, Won-hoo

General Contractor | Daegeon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347, Gwancheong-ri, Ganghwa-eup, Ganghwa-gun, Incheon,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Yikong Structural Lab

HVAC & Eletrical Engineer | Dae Yoo MEC

Electrical Engineer | Dawoo TEC

Civil Engineer | Dasan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EXT : Exposed Concrete, Artificial Stone
Aluminum Insulated Bar(w/Double Layer Glass)
INT : Advanced Natural Paint, Epoxy Coating

북동측 전경

강화읍교회에서 바라본 건물

대한성공회 강화읍 교회는 115년 된 국가보존문화재(사적 제424호)로 성공회가 선교를 시작할 당시 한국의 건축적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옥건축양식과 바실리카 교회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건축이다. 계획안은 이 한옥교회에 부족한 세미나실 및 식당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것이었다.

처음 설계를 의뢰 받았을 때 이런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의식에 의욕이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실수할까 하는 염려로 걱정도 많이 되었다. 문화재 심의를 받기 위해 제안된 기존안이 콘크리트 구조의 한옥이어서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제안은 문화재보다 큰 바닥면적을 갖고 있어서 지어지면 콤플렉스를 이루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주체가 되어야 할 문화재가 묻힐 것이라 판단되었다. 더구나 교회에서 준비한 예산을 고려할 때 한옥은 터무니가 없었다. 결국 고민 끝에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현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현대적인 건축을 제안하기로 하고 모형을 만들어 건축주의 승인을 득한 후 두 번에 걸쳐 3명의 문화재 위원들을 각각 설득한 끝에 문화재 심의를 마칠 수 있었다. 건축주의 빠듯한 예산에 맞추기 위한 노력은 결국 두 번의 설계로 가능해졌다.

문화재인 기존 교회를 고려하여 지상에는 관사만 두어 건축적 존재를 최소화하고, 주요 프로그램들은 지하 2개 층에 계획하되 새로 건설된 도로의 단면차를 이용하여 지하로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으로 생긴 지상의 여유 광장은 행사 등 다채로운 야외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다.
지하는 두 개의 선큰 정원을 통해 자연환기와 채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단순하고 전통적인 재료로 마감된 교육관 건물이 다양한 교육공간 등을 통해 강화읍 교회가 지역에 긍정적인 힘을 발산하는 도구이자 중요한 커뮤니티시설이 되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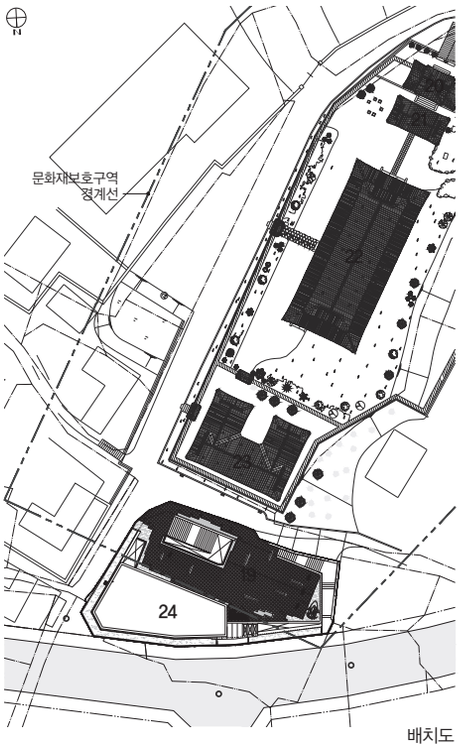
북동측 전경

동측면 오르막 골목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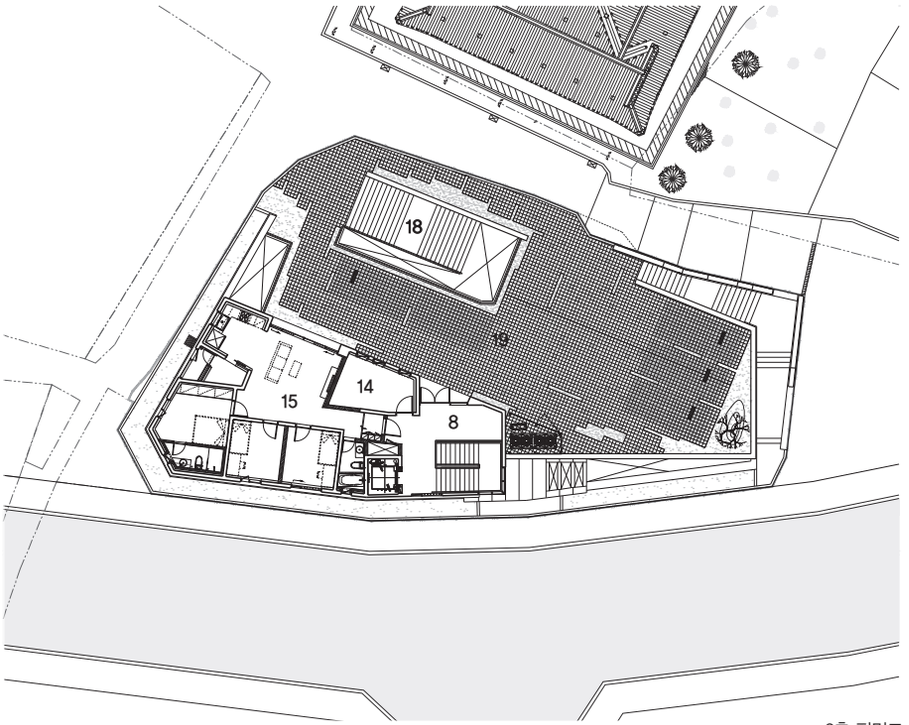
북측 전경

1층 선큰으로 연결된 외부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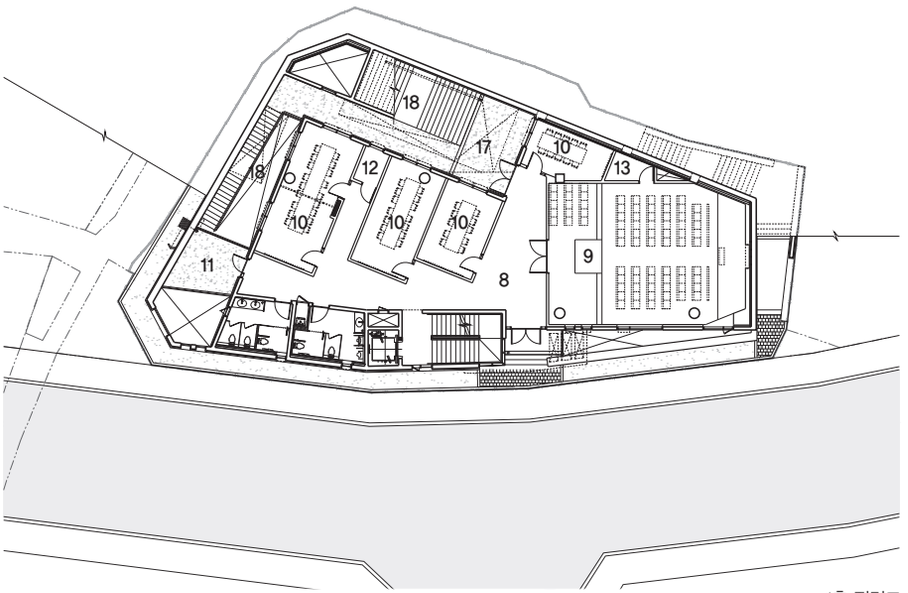
주차마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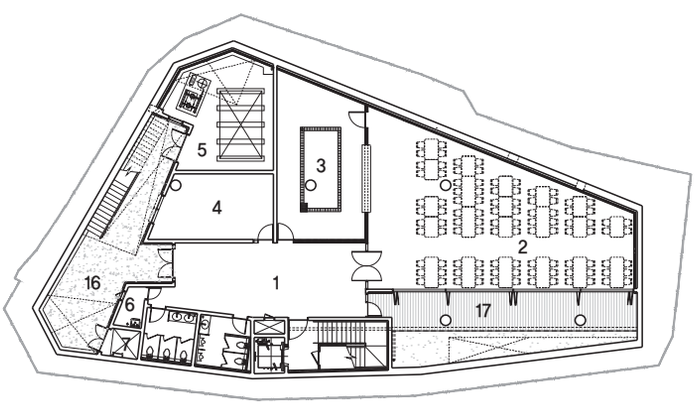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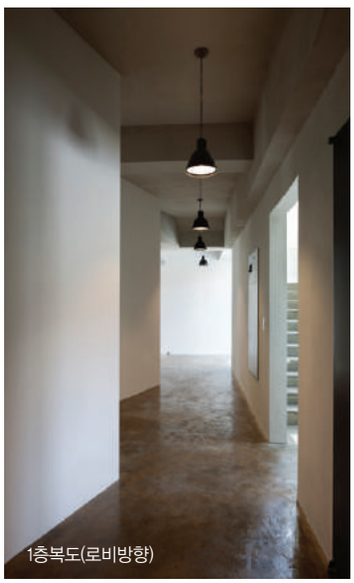
1. 홀
2. 식당
3. 주방
4. 집회실
5. 기계실/물탱크
6. 청소도구실
7. 펌프실
8. 로비
9. 소성당
10. 세미나실
11. 발코니
12. 창고
13. 준비실
14. 회의실
15. 관사
16. 선큰테라스
17. 선큰
18. 선큰계단
19. 주차마당
20. 외삼문
21. 내삼문
22. 성당
23. 사제관
24. 교육관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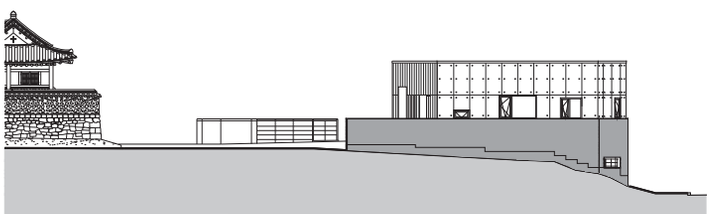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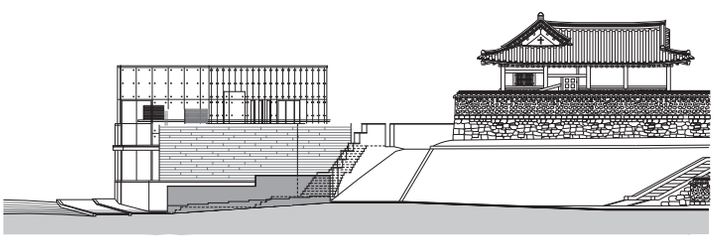
지하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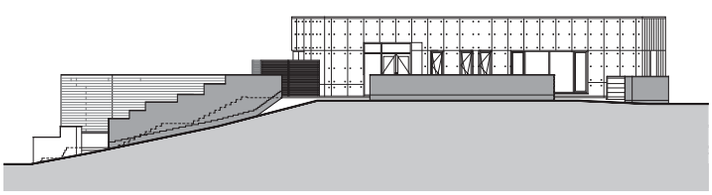

1층복도(로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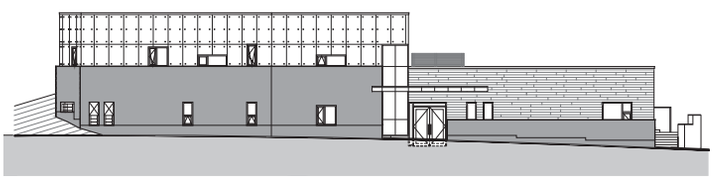
1층복도(선큰방향)

1층 소성당(성마가 성당)


좌측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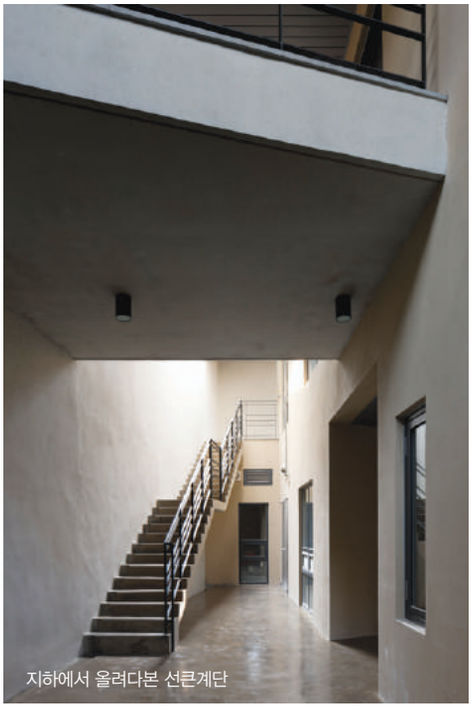

배면도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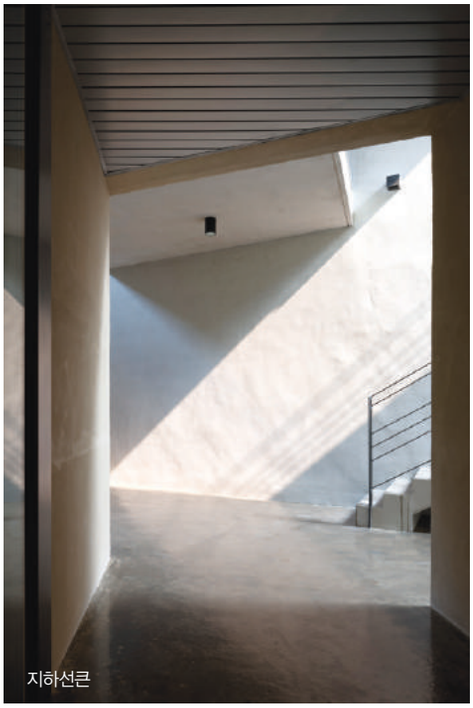
정면도

관사 거실에서 바라본 강화읍교회

1층에서 내려다본 선큰 브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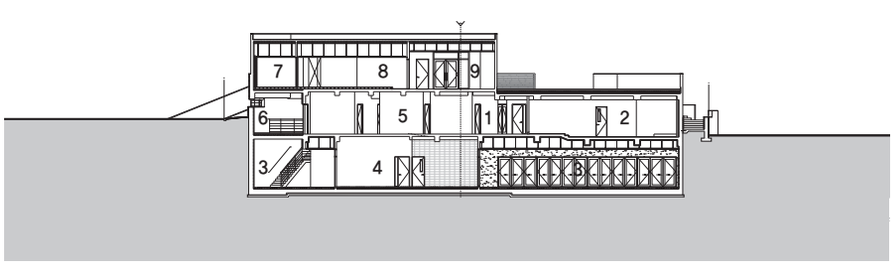


지하에서 올려다본 선큰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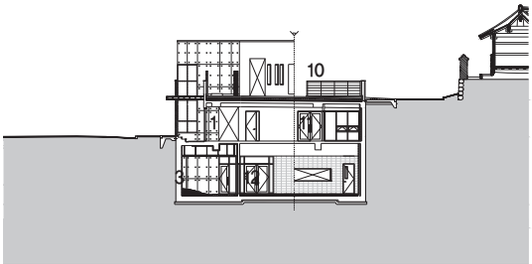
지하선큰

1. 로비 2. 소성당 3. 선큰 4. 홀 5. 복도 6. 테라스 7. 침실 8. 거실 9. 로비 10. 주차장 11. 세미나실 12. 식당



0 1 5 10m

횡단면도



종단면도

회원작품.

천안서북소방서

Cheonan Seobuk Fire Station

설계자 | 홍원기_KIRA | 원 종합건축사사무소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공학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2008 충남건축문화제 시행위원회 위원장과 2009~2010 충남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사)충남도시건축연구원 부원장,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충남건축사회 이사, 천안지역건축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선문대학교와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로 출강 중이다.

- 설계팀 : 김범수, 김종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이스트구조
  - 기계설비분야 : ㈜건우EMC
  - 전기설비분야 : 크라운엔지니어링

건축주 | 충청남도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수목

시공사 | 한솔공영㈜

대지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254번지

주요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6,042㎡

건축면적(Building Area) | 1,828.0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0.25%

용적률(Floor Area Ratio) | 58.82%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화강석, 알루미늄복합패널, 인조사암, 무늬목/쉬트지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10 ~ 2010.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6 ~ 2011. 0071

Client | Chungcheongnam-do

Architect | Hong, Won-gi

Project team | Kim, Beom-su / Kim, Jong-su

General Contractor | HANSOL ENC Corp.

Location | 254, Sin-gal-ri, Jiks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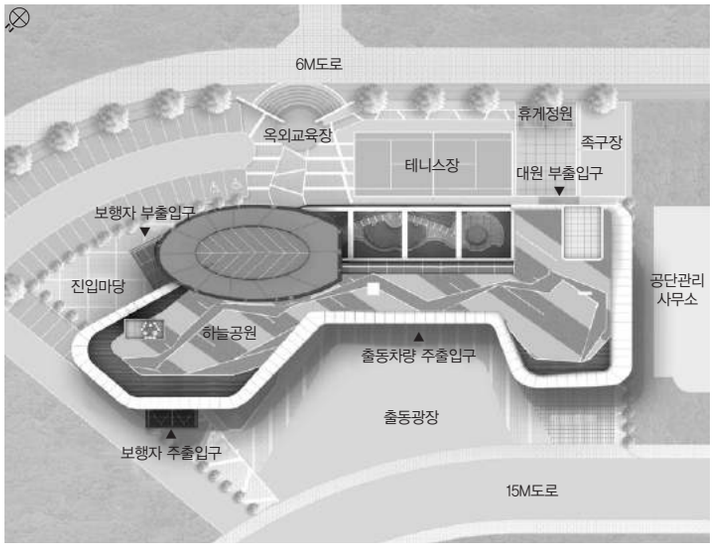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EST & Consuting Engeneers

HVAC & Eletrical Engineer | Geon. U. Elec. Mech. Consultants

Electrical Engineer | Crown ENG

Finishing Materials | Granite Stone, Aluminum Composite Panel, Artificial Sandstone, Sliced Veneer/Sheet



배치도

전경

천안시 북부지역을 담당하게 될 소방서 프로젝트로, 사업지는 10km내로 천안의 대부분 주요시설로의 접근이 가능한 관할구역의 중심에 위치했다. 보다 원활한 출동을 위해 교통량이 적은 산업단지 내에 자리 잡았으며, 기존 소방서와 합동 진압도 가능한 위치다. 도시가 확장함에 따라 기존에 시 단위로 통합 운영되었던 소방서에 분산운영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계획은 우선 천안서북소방서 청사의 공간체계와 경관위계를 분석하고, 절대 보존의 상징적 공간을 설정하여 시민들과의 공존을 꾀하고,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도시 미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소방활동뿐만 아니라 지도 및 교육기능을 보완하는 청사로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배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지 형태와 장소적 아이덴티티가 조화되는 엄지손가락 형태의 매스를 계획하고, 외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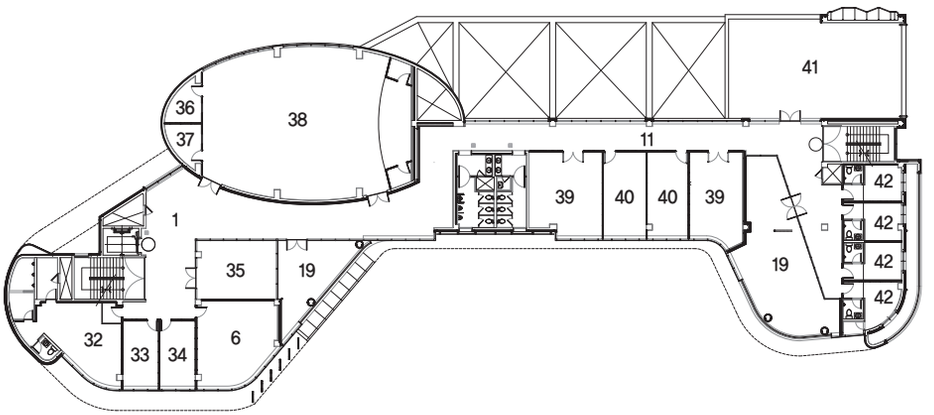
엄지 형태의 매스는 자연림을 건물 깊숙히 유입하며, 거대하고 웅장한 매스는 안정적이면서도 디자인의 포인트가 됐다. 또한 정면성을 강조하고 도시경관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내부공간은 분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 우선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분리해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대회의실과 운동공간 등의 대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긴급 시 출동을 고려해 각층별 대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은 평면계획과 연계했으며, 민원공간과 대원공간을 분리해 최단거리 이동으로 출동이 가능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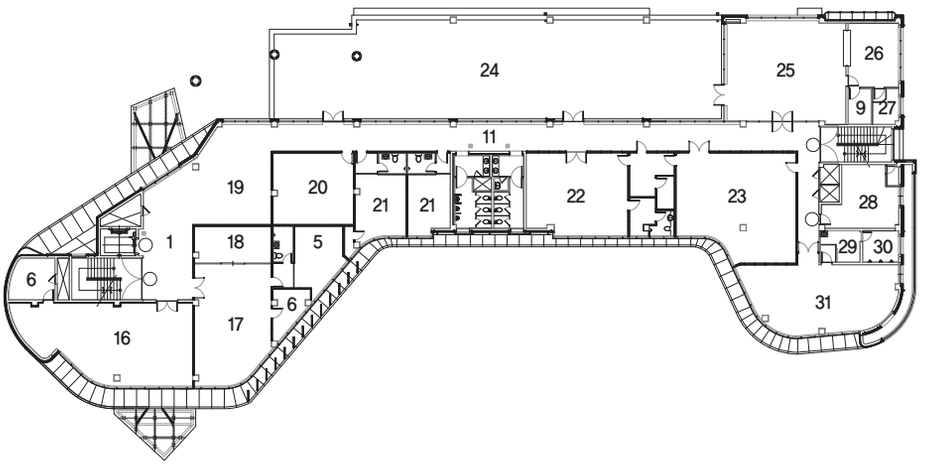
출동차량 주출입구 전경

부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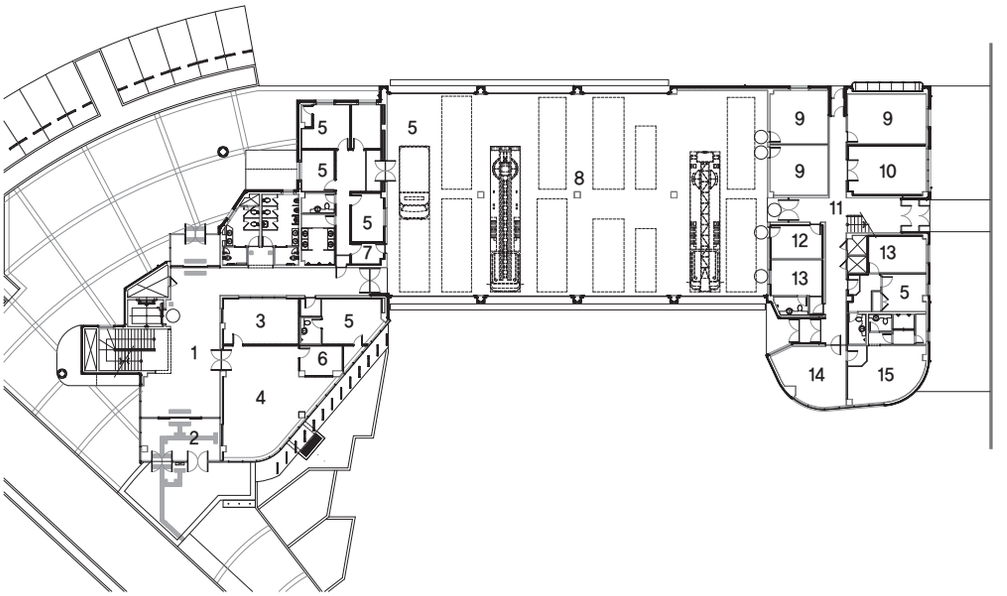
1. 홀
2. 방풍실
3. 센터장실
4. 직할센터
5. 대기실
6. 서고
7. 세탁실
8. 차고
9. 창고
10. 개인락커
11. 복도
12. 세척실
13. 구급대기
14. 구급사무실
15. 구조대기실
16. 방호예방과
17. 대응구조과
18. 통신기계실
19. 휴게공간
20. 소회의실
21. 당직실
22. 서장실
23. 소방행정과
24. 옥외교육장
25. 식당
26. 주방
27. 휴게실
28. 물품창고
29. 탈의실
30. 샤워실
31. 부속실(체력단련실)
32. 의무소방대기실
33. 성능시험실
34. 화재분석실
35. 홍보 및 체험관
36. 방송실
37. 소품실
38. 대회의실
39. 의용소방대
40. 대장실
41. 옥상
42. 숙소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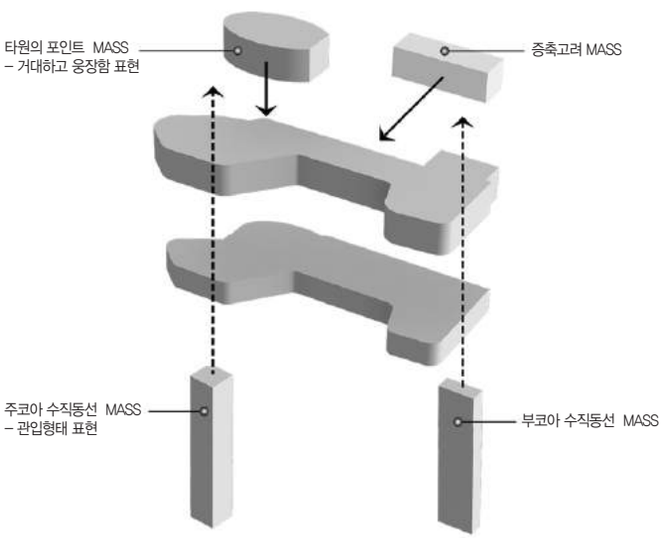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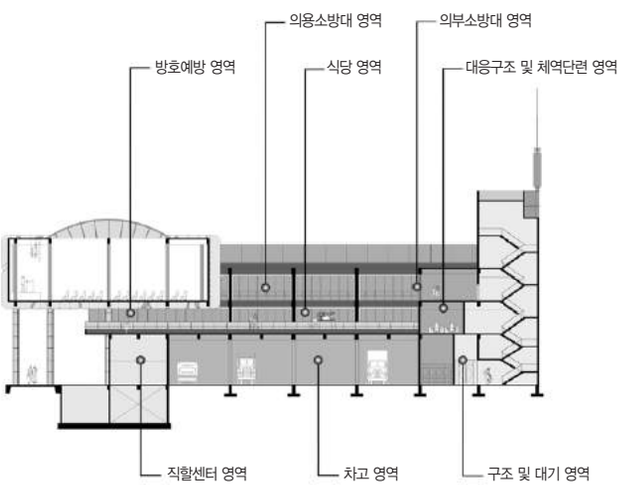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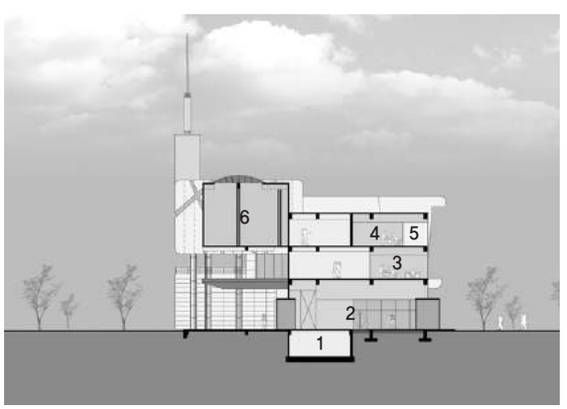
옥외휴게공간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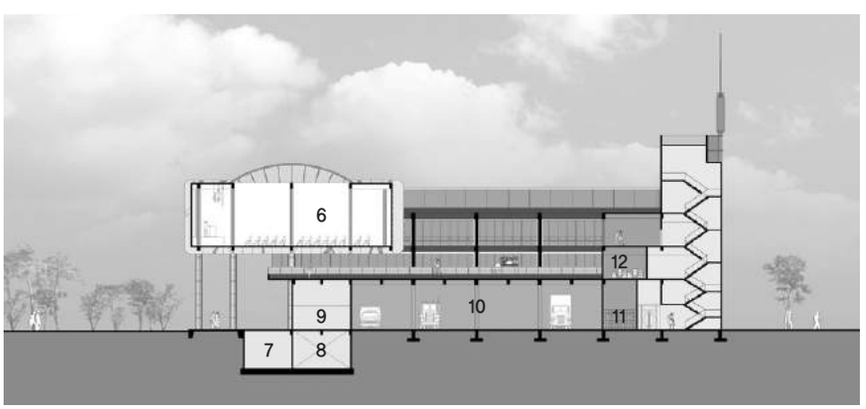


1. 지하홀 2. 로비 3. 방호예방과 4. 부속실 5. 탕비실 6. 대회의실 7. 기계실 8. 저수조 9. 장비창고 10. 차고 11. 샤워장 12. 대기실



0 2 3 5m

종단면도



횡단면도

회원작품.

서유당

Seo You Dang

설계자 | 이순미_KIRA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건축사사무소 미가온의 대표 및 전남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녹동연안여객터미널, 광주 양지초등학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518 아카이브관 등이 있다. 북구 청소년수련관, 미가온 빌딩으로 광주시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2회 대한민국경관대상에서 대상, 2013년에는 제8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 설계팀 : 최경주, 김경우, 강현창, 정종윤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도화구조
  - 기계설비 : 삼원 ENG
  - 전기분야 : 삼원 ENG
  - 토목분야 : 디오 ENC

건축주 | 조청환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시공사 | 아이리스 건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63번길 23(진월동 859-75번지 외 1필지)

주요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054㎡

건축면적(Building Area) | 381.64㎡

연면적(Gross Floor Area) | 1,113.8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6.21%

용적률(Floor Area Ratio) | 60.45%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티타늄아연판, 고밀도압축목재, 로이복층유리, 점토벽돌 치장 쌓기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2 ~ 2013. 06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8 ~ 2014. 04

사진(Photographer) | 조성진(Cho, Sung-jin)

Client | Cho, Cheong-hwan

Architect | Lee, Soon-me

Project team | Choi, Gyeong-joo / Kim, Gyeong-woo / Kang, Hyun-chang Jeong, Jong-yun

General Contractor | IRIS Construction

Location | Seomundaero 663 beon-gil 23, Nam Gu, Gwang Ju metropolitan City,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DoHwa Structure

HVAC & Eletrical Engineer | Samwon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Samwon Engineering

Civil Engineer | D.O. ENC

Finishing Materials | Titanium Zinc Sheet, High Density Compressed Wood, Low-E Thermopane, Clay Brick

주택 설계를 의뢰 받고 대지와의 첫 만남의 느낌은 무엇보다도 프라이버시가 가장 요구되는 주택의 부지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주위에 어지럽게 분포되어 있는 많은 근린생활시설, 5층 규모의 인접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대지, 그리고 4m의 레벨 차이에 길쭉한 이등변 삼각형의 부정형 모양, 멀리 시선을 두면서 주변을 살펴보아도 아파트 숲들과 낡은 2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둘려 쌓여 있는 땅이라 프라이버시와 전망 모두에서 열악한 부지였다.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건축사의 몫인 만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시 살피니 멀리 보이는 도시숲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먼저 전면 12m 도로변의 많은 교통량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작으면서도 길쭉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다. 4m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지하에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두었고, 지상은 주택동과 근린생활시설동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영역성과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북측의 건물 실루엣과 서측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긴장과 이완의 경계에 위치한 주택은 단절이 아닌 소통의 공간이자 적절히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남측으로 열린 공간에 자연스러운 빛이 건물에 스며들게 하여 따뜻한 집을 계획하였다.

현관, 거실, 주방, 데크, 마당으로 이어지는 컨셉은 남북측으로 긴 대지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결과다. 1층에는 공용공간인 거실, 주방, 식당과 게스트룸 및 아들침실이 자리한다. 그리고 외부의 마당을 연결하는 데크가 한쪽으로 마련돼 있다. 앞마당은 넓게 비워놓고, 뾰족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조경을 활용해 완만한 형태로 교정하였으며, 게스트룸 옆의 데크는 아파트로부터의 시선을 완벽히 보호해 주는 곳이다. 후면의 마당은 근린생활시설과의 적정한 영역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앞마당의 정원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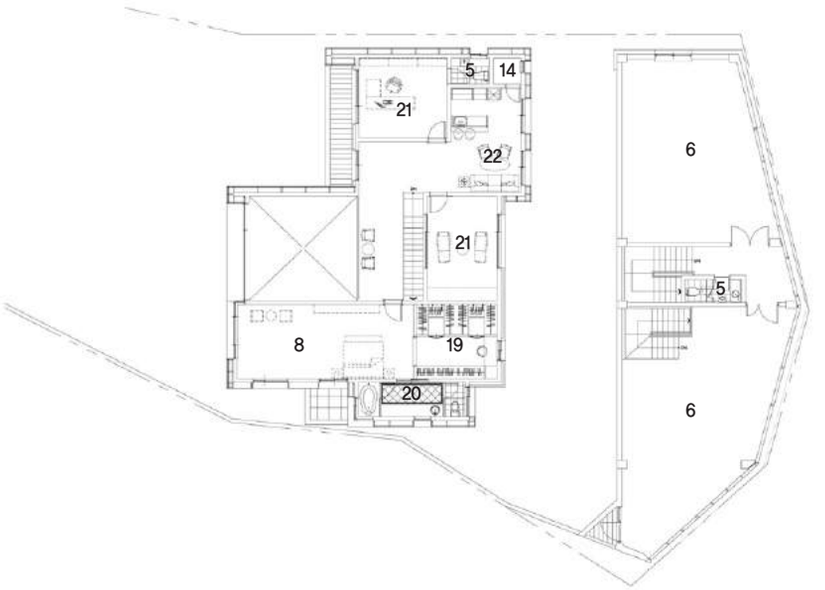
현관에 들어서면 주택의 중심부인 거실이 위치하고, 큰 창을 통해 겨울에는 남쪽의 햇살이 2층까지 깊숙이 들어온다. 자연의 빛을 최대한 건물로 스며들게 하는 창을 두어 공간에 변화를 준 것이 특징 중 하나다. 2층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침실로 구성하였고, 건축주 부부를 위한 서재를 배치하였다. 남측의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은 2층까지 이어져 풍부한 공간을 이루게 하고, 테라스를 통해 여유로움을 더하는 동시에 입면의 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건축에서부터 인테리어, 조경 및 대문 디자인 등 토탈 디자인을 통해 건축주의 절제와 겸손의 철학을 반영코자 하였다. 몰딩과 걸레받이가 없는 시공을 원칙으로 진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에 어려움과 앞마당으로의 대문 계획이 삭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건축주가 만족함에 건축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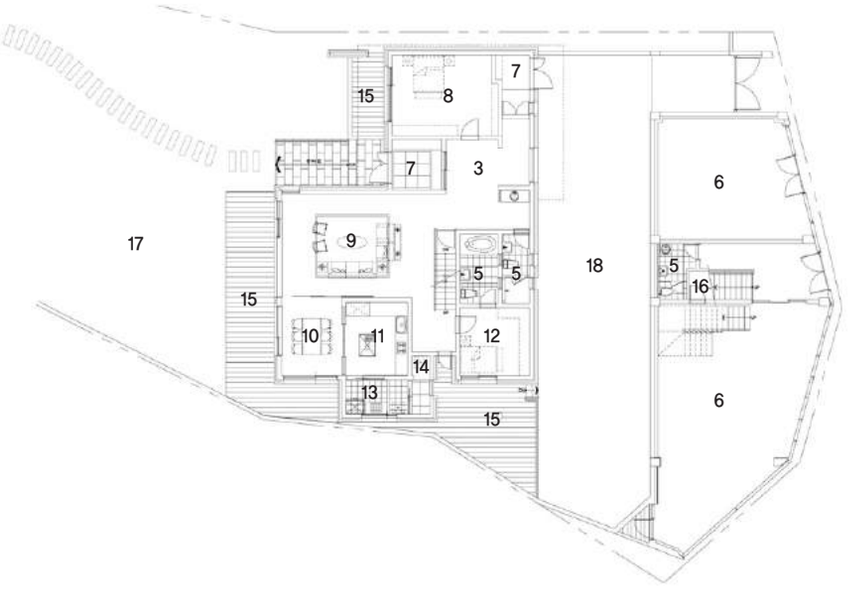
외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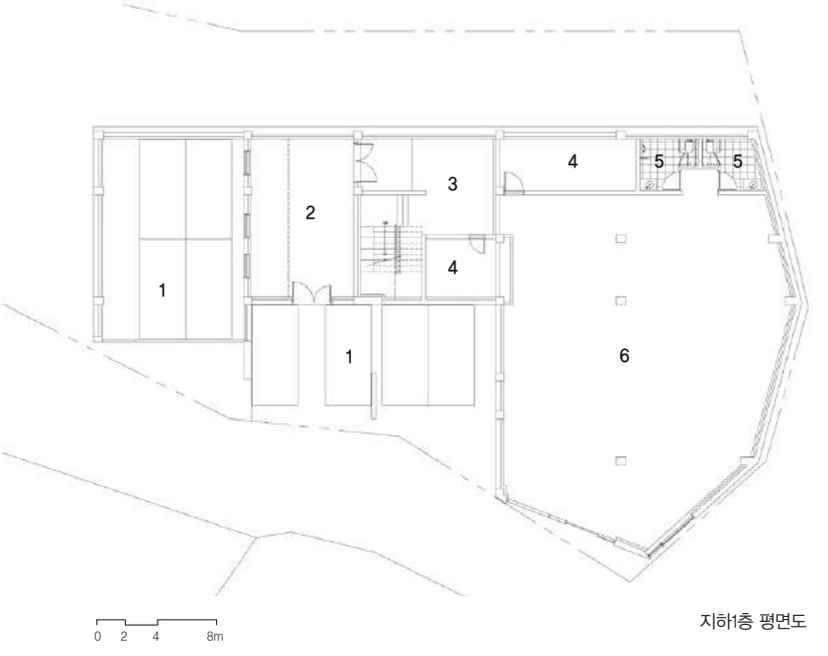
1. 주차장
2. 헬스장
3. 홀
4. 물탱크실
5. 화장실
6. 근린생활시설
7. 현관
8. 침실
9. 거실
10. 식당
11. 주방
12. 게스트룸
13. 다용도실
14. 보일러실
15. 데크
16. 창고
17. 앞마당
18. 뒷마당
19. 드레스룸
20. 파우더룸
21. 서재
22. 가족홀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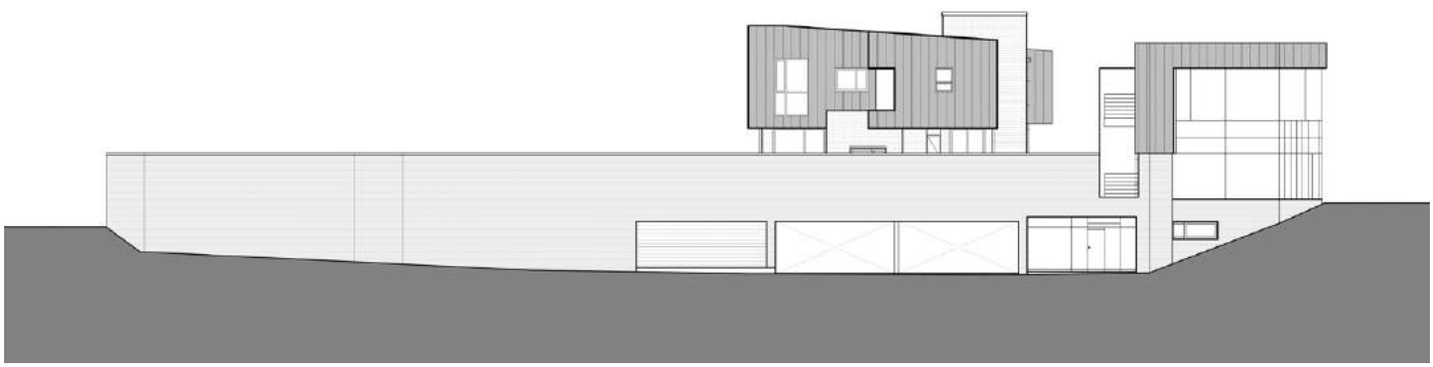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외관(데크)

대문

현관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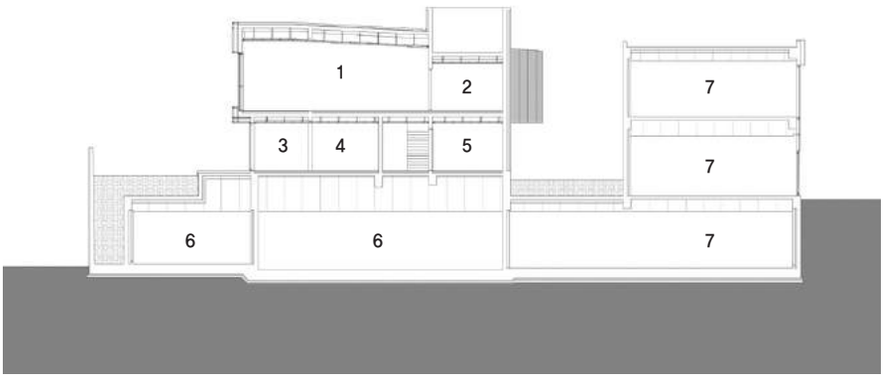
0 2 4 8m

좌측면도

1. 침실 2. 드레스룸 3. 식당 4. 주방 5. 게스트룸 6. 주차장 7. 근린생활시설

0 2 4 8m

정면도



종단면도

방어노인복지관 당선작

Bangeo Seniors Welfare Center

발주자 : 울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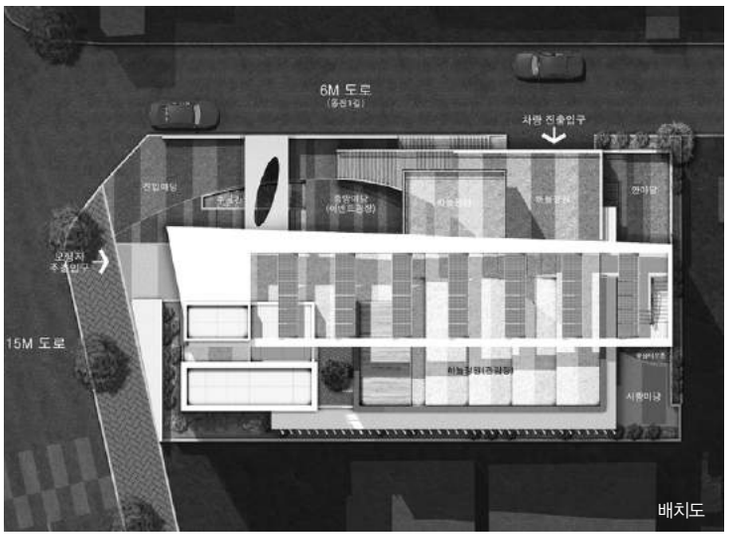
설계자 : 정태석 KIRA | ㈜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이재학, 민종갑, 정현관, 김동규, 정종훈, 조현민, 김종아, 최기훈, 임동철, 김준영, 김진강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5-1
주요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대지면적 781.80㎡
건축면적 442.06㎡
연 면 적 2,071.34㎡
건 폐 율 56.54%
용 적 률 190.07%
규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중공슬라브(신기술 제628호)
규 모 지하1층 ~ 지상5층
주요마감 유글라스, 노출콘크리트, 화산석, 로이유리, 스타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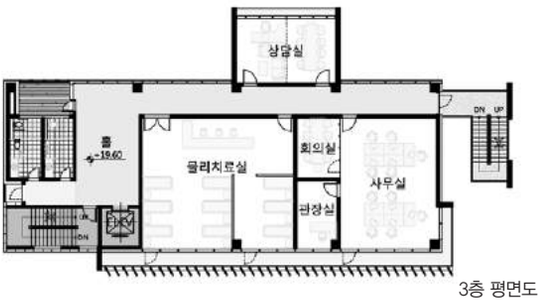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에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경계에 위치하며, 인근에 주거, 교육, 종교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북서쪽의 15m도로에서 주진입이 이루어지고 복동쪽의 6m도로로 차량진입이 이루어지며, 다소 협소한 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계획된 노인복지관은 1F 경로당, 2F 식당, 3F 사무실, 4F 프로그램실, 5F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라는 커다란 숲 속에 당신을 위한 비워진 마당을 드립니다. 만남과 소통의 장소는 빠르고 답답한 풍경이 아닌 느림과 머무름을 가지는 자연을 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노인복지관은 자연의 기억을 담고 도심 속 치유의 장이 됩니다.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위한 '머물고 싶은, 베품이 있는 마당'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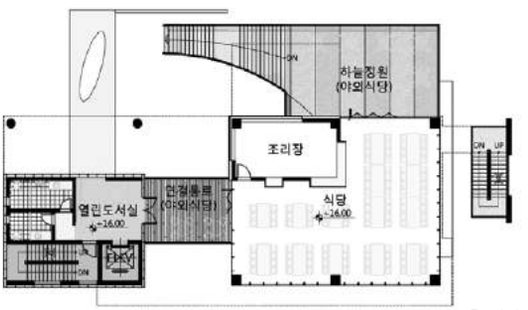
입면은 주변의 자연경관인 슬도 바위의 패턴을 추출하여 지역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입구를 분리하여 출입을 원활하게 하였다. 경로당은 전통요소를 끌어들여 마당과 툇마루를 두어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진입마당에서 중앙마당, 사랑마당, 안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만남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하며, 그린 스텝은 자연스럽게 동선을 자연으로 유도하며, 자연의 기억을 담고 도심 속 치유 및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각층의 프로그램은 그린스텝(하늘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안과 밖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자연을 담아내도록 하였다. 태양광시스템을 오브제로 만들었으며 소통의 공간인 하늘정원의 녹화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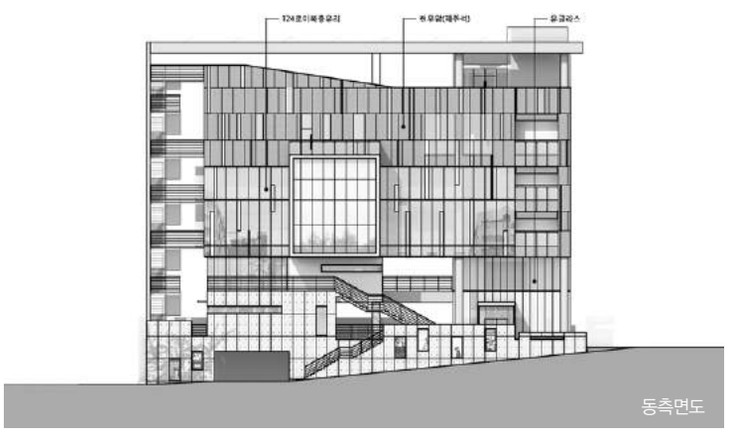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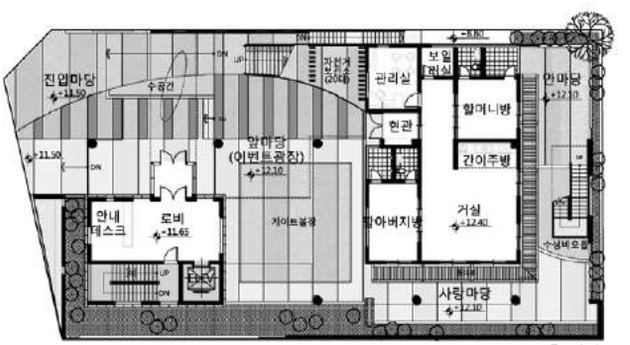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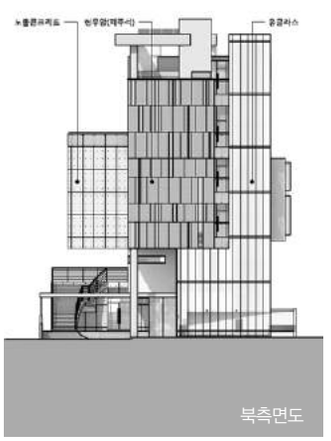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천안시 도솔광장 다목적공연장 당선작

Cheonan-si Dosol Square Multi-purpose Hall

발주자 : 천안시

설계자 : 이운구 KIRA | ㈜유성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왕효성

대지위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38번지 일원(문화광장조성지구내)
주요용도 다목적 공연장
대지면적 37,000㎡
건축면적 2,841.64㎡
연 면 적 4,311.51㎡
건 폐 율 7.68%
용 적 률 10.7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1층 ~ 지상3층
주요마감 제치장콘크리트, 화강석, 방부목재

65만 시민의 천안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솔광장 내에 공연, 연극, 전시, 영상, 독서 등을 위한 다목적 공연장을 신축하여 천안의 랜드 마크로 조성하고자 한 사업이다.

천안IC에 위치한 도솔광장 중심부에 세워지는 건물로, 천안을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강한 조형적 표출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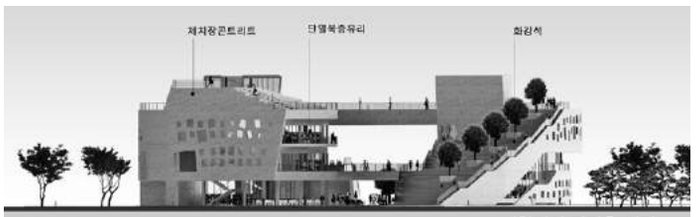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답안으로서 우리는 천안삼거리 '흥타령'에 얽힌 '능수버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삼고 디자인을 풀어나가 '버들동산'을 제안했다.

도솔광장에는 두 개의 큰 활동공간인 '대학인의 광장'과 '잔디마당'이 있다. 이 두 공간을 MALL 형태로 구성해 '버들동산'을 만들어 광장의 중심장소를 형성하고 능수버들에 얽힌 연가로서 광장의 상징을 세웠다.
'오래된 미래' 사라지지 않는 것에는 가치가 있다. 오래된 순수를 건축에 담아 미래로 잇는다.

배치도

전면도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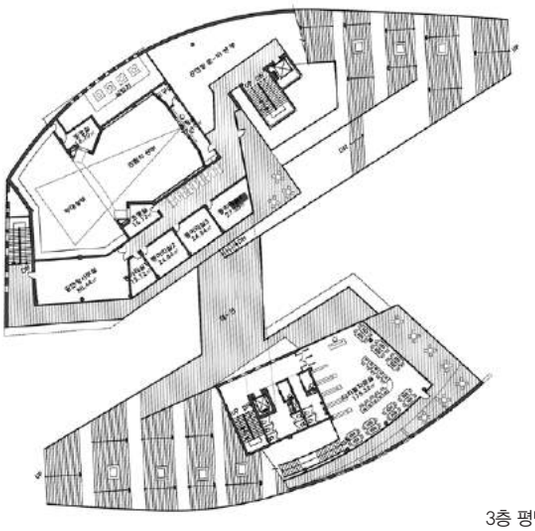
잔디마당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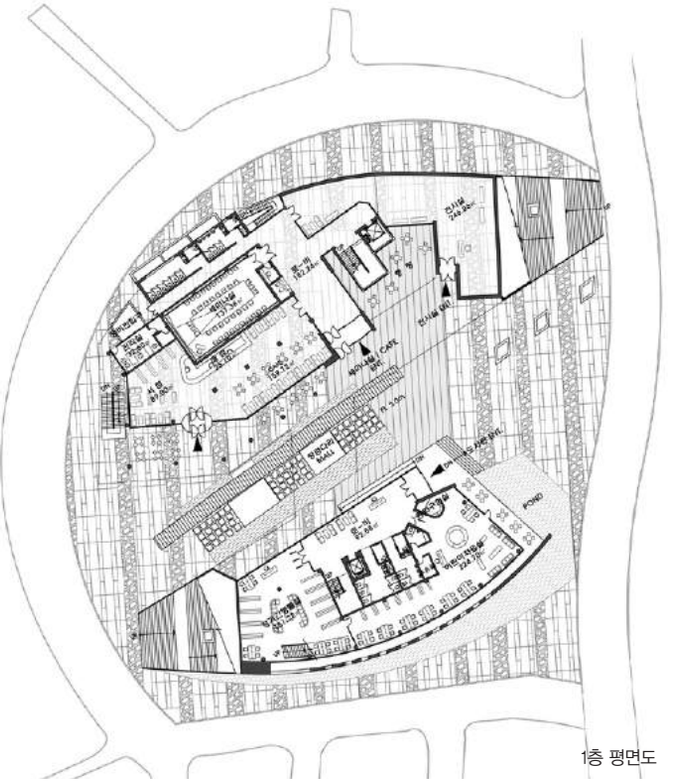
대학인의 광장측 입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인 조잡시공의 의미와 판단기준

The Meaning and the Criterion On Coarse Constructions Which are to Get Supervisors to be Restricted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로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시 · 도지사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8호로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인데, 그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그리고 '시공감리'란 품질관리 · 시공관리 ·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말하고(동법 제2조 10호),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호).

종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라 함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 · 설계도서 · 건설관행 · 건설업자로서의 일반상식 등에 반하여 시공됨으로써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이 훼손된 것을 뜻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물론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이러한 의미에 부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 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조), 발주청(여기서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5호)으로 하여금 발주하는 건설공사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동법 제27조), 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동법 제28조의4 제1항)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 취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목적,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권한과 역할 등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책임감리 불성실로 인한 시공결과에 대해 감리전문회사의 제재를 규정한 취지는, 감리전문회사에게 그 소속 감리원을 통하여 공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만큼,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판례는 "위 조항에서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잘못된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상태가 건축법 등 각종 법령 · 설계도서 · 설계관행 · 건설업자로서의 일반상식 등에 어긋나는지, 그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예정된 때에는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원래 설계내용 대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참조).

한편,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5항에서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17]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2의 아.항에서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에서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행규칙 규정은 처분의 가중 · 감경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처분 요건을 규정할 것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므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는 위 시행규칙 규정이 아니라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5항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11조는 이러한 위임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9]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불성실감리로 인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1조 관련 [별표 9]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2의 아.항에서는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① 부실시공으로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1차 업무정지 8개월, 2차 업무정지 12개월 ②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차 업무정지 4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③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1차 업무정리 2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재.

글. 이관석_ Lee, Kwan-seok
·
경희대학교 교수

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

건축 전공자라면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대해 조금씩은 안다. 현대건축에 끼친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은 어느 건축사 못지않게 자세히 소개됐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르코르뷔지에를 주목하는 것은 사회 · 예술 · 문화 전반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거침없이 더듬은 그의 예민한 촉수가 여전히 수많은 향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더듬어 따라가 각각의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안도할라치면 또 다시 예상치 못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생명력 앞에서 그의 사망 후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해진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에 이은 이번 르코르뷔지에 연재에서는 그동안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에서 약간 다른 면이나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면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지난 몇 년 간 학술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살폈던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건축 일선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를 접하기 쉽지 않은 건축사분들에게 르코르뷔지에의 또 다른 일면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르코르뷔지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자세가 어떠했는지, 다소 엉뚱하지만 직접 건축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그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을지, 불황 때문에 일거리라곤 없다시피 했던 10여 년의 무시무시한 공백기를 그가 어떻게 견디며 내일을 기약했는지, 스치는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바꾼 그의 인연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프랑스 건축사 학위를, 파리1대학교에서 예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남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2004)와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2011) 등의 저서를 비롯해 역서 〈건축을 향하여〉(2002), 〈프레시지옹〉(2004), 〈오늘날의 장식예술〉(2007) 등 십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

연재 목차

1. 르코르뷔지에와 기계
Le Corbusier and Machines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 교육
3. 르코르뷔지에의 '지속연구'
4. 르코르뷔지에의 인연
5.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

1. 르코르뷔지에와 기계

Le Corbusier and Machines

들어가며

1900년대 초는 가히 기계의 시대라 할 만하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생활용품을 지배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1920년대에는 기계미학 개념이 형성됐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계의 논리가 디자인 논리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를 전후해 유럽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행되어 건축을 포함한 예술의 현대적 의미를 적극적이고 경쟁적으로 모색하던 다수의 선구적 예술 평론지들에 의해 더욱 확산됐다.[1)]

당시 새로운 건축의 길을 찾고 있던 선구자들의 기계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건축을 포함해 뛰어난 품질을 지닌 제품의 대량생산이 갖는 시대적 당위성과 변치 않아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예술가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일어난 숱한 논쟁은, 근대 운동과 소속 작가들의 기계에 대한 다른 태도로 인해, 1930년대까지 지속됐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르코르뷔지에의 기계에 대한 깊은 고찰은 1920년대 그의 저서들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통적인 책 기술법과 달리 이미지-이미지 또는 이미지-텍스트 병치법에 의거해 전개됐던 그의 저서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 1923)』 등이 지닌 전파력은 굉장했다. 이 책에 게재된 곡물저장 사일로나 교량 같은 엔지니어 미학을 보여주는 공학의 성과물들과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의 연감에서 새로운 산업시대의 주요한 기술적 구성원으로 이미 인정받은 대형여객선, 비행기, 자동차 등의 기계화된 수송수단의 사진들은 새로운 시대의 양식이 이미 존재함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계에 대한 그의 유별난 관심은 적잖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이 많았던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La maison est une machine à habiter)" 같은 발언은 건축과 기계의 연관성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관점을 불신하게 만들기도 했다.[2)]

르코르뷔지에가 기계에 대해 가장 깊이 천착했던 1920년대의 생각이 정리된, 건축계를 넘어 세계 문화 · 예술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의 저서들에 담긴 기계에 대한 많은 언급들을 토대로 그가 어떻게 기계에 대한 각별한 관점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얼마나 폭넓은 시야로 기계를 주시했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계(미학)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경계하고 고전과 전통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균형 잡힌 건축사로 설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기계와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사고

1) 기계를 보는 르코르뷔지에의 혜안

기계는 도구의 발전된 형태로서 어떤 원동력에서 출발해 적절한 효과를 산출해내는 조합된 메커니즘의 집합이다. 17세기 이래로 기계는 물리학의 모델이 되었다. 자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동일시되어 데카르트(R. Descartes)는 "이 거대한 기계(자연)에는 오직 기하학적 형태와 그 부분들의 운동이 있을 뿐"이라고 설파

1) L'Esprit Nouveau, De Stijl, MA, Dokumentum, Tèr ès Forma, Der Sturm, i 10, ABC-Beiträge zum Bauen, Starva, Wasmuths Monatshefte für Baukunst 등이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예술 경향을 주도해나갔다.

2) 르코르뷔지에의 1926년 저서 『근대건축연감(Almanach d'architecture moderne)』에 나오는 이 유명한 발언에 대해 보수적 아카데미 회원들은 부동성과 가족의 보금자리를 상징하는 주택을 기계와 연계시켰다고 분노했고, 진보적인 전위 예술가들은 서정성에 빠져 기계를 배반했다고 비난했다(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 · 이관석 공역, 동녘, 2004, 105쪽). 르코르뷔지에는 명상하기 편리한 장소며, 최종적으로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평안함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주택이 명상, 미의 정신, 이를 통제하는(또한 이 아름다움의 버팀목이 됨) 질서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 비로소 건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업할 때 신속함과 정확성을 위해 효과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기계이자 안락함이라는 신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근면하고 세심하게 배려된 기계라는 것이다.

했다. 인간과 동물의 신체 같은 생물학적 현상들도 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데카르트 이후 기계를 모델로 해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건축사는 지배적인 감정과 그 심오한 의미, 즉 사회에 확산된 당대의 시대정신을 통찰력으로 발견하고 표현해야 한다. 시대정신에 합당한 새로운 건축을 향한 르코르뷔지에의 열망은 기계가 주는 교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한다. 당시 산업계를 주도하기 시작한 기계를, 르코르뷔지에는 이 세상에서 정신의 개혁을 수행하는 근대적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새로운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정신이, 기계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아울러 기계의 속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저서들에는 세계를 기계시대로 급속히 방향 전환시킨 이탈리아 미래주의자들 이전에 이미 "미학자들은 경시하지만, 야성적 힘의 승리라 할 수 있는 이 육중한 덩어리 속에는 거장의 그림이나 조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상과 지성, 궁극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정한 예술'이 내재한다."며 기계미를 격찬한 프랑스 철학자 수리오(Paul Souriau) 만큼이나 기계를 향한 찬탄과 원인과 결과의 순수한 관계라는 기계로부터 얻은 교훈을 보인 문장들이 거듭 나타나며 강조된다. 인류사의 새로운 요소로서 사회를 빠르게 개조하여 모든 것을 전복시킨 기계가 일으킨 정신 개혁에 르코르뷔지에가 유독 민감했던 것은 정밀성 · 경제성 · 정확성 · 엄격성 · 논리성 · 순수성 같은 기계의 특성에서 순수의 미학, 정확성의 미학, 표현적 관계의 미학이 가동돼야 할 현대건축이 본받아야 할 덕목을 간파한 그의 혜안 덕분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같이 본질에 더 주목하는 근대적 관점이 기계에서 건축이 본받아야 할 교훈을 추출할 수 있게 했다.

르코르뷔지에의 기계에 대한 이러한 자세는 독일공작연맹과의 접촉 등 산업사회를 두루 체험한, 1907년에 시작된 장기간의 답사에 의해 태동됐다. 그는 1918년에 오장팡(Amédée Ozenfant)과 함께 발표한 『큐비즘 이후(*Après le Cubisme*)』에서 "작업에 혁명을 가져오면서 기계는 거대한 사회적 개혁의 씨앗들을 심는다. 정신에게 이전과는 다른 조건들을 부과하면서 기계는 정신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 [3]고 했다. 이것은 기계와 작업에서의 새로운 조직체계의 등장이 이미 1920년대에 그가 발간했던 여러 저서들의 근원인 예술평론지 『레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 1920~25)』를 함께 꾸려간 오장팡과 그가 함께 행했던 숙고의 출발점이었음을 보여준다.

『레스프리 누보』 창간호 표지, 1920년

"아무것도 과학과 예술 사이에 양립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가정을 하도록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하나는 다른 하나처럼 우주를 방정식으로 세우는 목적을 갖고 있다." [4]는 주장도 두 사람이 기계로 대변되는 과학과 예술의 근접성에 대해 수긍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주 속에서 자연은 법칙에 의해 통제되는 기계로서 보편적 조화의 이상적 구현으로 완벽하게 질서체계를 갖춘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신비로운 해석을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설명으로 대체하고 있다. 자연과 그 법칙의 저변에 깔린 질서체계의 표현은 예술가에게는 조화와 미의 원천이었으며, 과학자들에게는 진리의 구현이었다. 예술가와 과학자는 상수와 불변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연 법칙을 정의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과학은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질서체계를 알리면서" [5] 예술을 발전시켜나갔다는 것이다. 예술가는 관찰과 자신의 감수성 덕분에 숨겨진 법칙들을 예감했다. 예술가는

3) Ozenfant et Jeanneret, Après le Cubisme, éditions des Commentaires, 1918, p.26
4) Ozenfant et Jeanneret, Après le Cubisme, éditions des Commentaires, 1918, p.32
5) Ozenfant et Jeanneret, Après le Cubisme, éditions des Commentaires, 1918, p.45
6) 『큐비즘 이후』과 더불어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 저서들의 모태가 되는 예술평론지 『레스프리 누보』에는 기계와 건축을 포함한 예술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언급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Gérard Cladel, Le Corbusier et le défi machiniste, in Le Corbusier, le passé à réaction poétique, Catalogue de l'exposition présentée à l'Hôtel de Sully, 1988, pp.179~185 참조

그것들을 형태로 구체화하여 지각될 수 있게 했으며, '미의 영역'을 확장시켰다.[6]

2) 총체적 관점에서의 기계

당시 르코르뷔지에가 기계를 통찰하는 관점이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이었는지를 이성주의자, 실용주의자 및 기능주의자의 시각으로 나눠 기계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베네(A. Behne)의 분류[7]에 의거해 들여다보자.

① 이성주의자적 관점에서의 기계

먼저, 기계를 하나의 이상적인 완벽한 체계로 보는 데서 르코르뷔지에의 기계에 대한 이성주의자적 관점을 볼 수 있다. 그는 기계를 자신이 중시하는 개념인 표준화와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구성, 조립되고 각 부분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주목했다. 그는 당시 최신 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대양횡단 증기선 및 비행기를 사례로 제시한『건축을 향하여』의「보지 못하는 눈」장에서 관습에 질식된 건축이 새로운 정신으로 충만한 산업 생산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을 거듭 주장했다.

르코르뷔지에는 인간의 이해와 지각능력을 초과해버린 기계의 성취에 놀란 가상의 인물 폴(Paul)의 입을 빌려 "완벽함의 영역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말하며 기계를 이상적인 완벽한 체계로 보는 이성주의자적 관점을 드러낸다.[8] 그러나 여기서 그가 말하는 완벽함이 더 이상의 성취가 있을 수 없는 절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르코르뷔지에가「보지 못하는 눈」장의 자동차 편을 "우리는 완벽성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해 "그러나 우리는 완전함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표준의 설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문장으로 마친 데서 알 수 있다.[9]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인 표준이 어떤 이상적 결론에 닿아 완전무결한 기준이 당장 탄생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에게 표준이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끊임없는 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표준이 설정되면 즉각적으로 극심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함을[10] 예리하게 포착했다. 제품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윤곽과 디테일 같은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보다 더 잘 만들어야 한다. 이 불가피한 경쟁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 그 결과 진보를 이룬다고 보았다.

르코르뷔지에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되며 당시 기술의 최대치인 새로운 표준을 따라 대량생산되는 자동차의 전례를 표준을 선택한 신중한 선택의 산물인 파르테논에서 찾았다. 파르테논의 건축사 페이디아스(Pheidias)처럼 논리와 분석, 면밀한 연구의 산물로서 명확하게 규정된 문제에 기초한 표준에 의해 제어되는 건축[11]의 가능성과 성공을 믿은 것이다. 우리 정신의 엄밀한 기계장치를 가동시킬 수 있는 "돌아가는 모든 기계는 현재의 진리" [12] 라고까지 말한 그에게 기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 내용이었다.

『건축을 향하여』에 나오는 파르테논과 자동차

② 실용주의자적 관점에서의 기계

르코르뷔지에가 시간, 일, 에너지의 절약 등 경제적 측면으로 기

7) A. Behne, Der moderne Zweckbau, Drei Masken Verlag, 1926; English Translation by BLETTER, R. H., 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for the History and Art and the Humanities, 1996, p.130. 베네는 이 책에서 기계에 대한 당시 관점의 차이를 이성주의자, 실용주의자, 기능주의자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르코르뷔지에의 저서에 등장하는 기계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이 세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3년에 탈고됐으나 1926년에 출판된 책에서 그는 미스 반데어로에(Mies van der Rohe)나 한스 샤로운(Hans Sharoun)을 포함하여 건축을 뒤늦게 시작해 소수의 작품을 하고 있던 르코르뷔지에를 근대건축의 주요 건축사로 주목하는 혜안을 보였다.

8) Le Corbusier,『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2007, 동녘, 126쪽

9) Le Corbusier,『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2007, 동녘, 143 & 155쪽

10) Le Corbusier,『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2007, 동녘, 145쪽

11) Le Corbusier,『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2007, 동녘, 155쪽

12) Le Corbusier,『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2007, 동녘, 130쪽

계를 보는 실용주의자의 시각도 갖고 있음을 그의 책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기계류 자체에 이미 선택을 요구하는 경제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음을 포착했다. 엄밀한 선택으로 이끄는 필수 인자인 경제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13] 그는 이 문장 앞뒤에 모든 현대인들이 기계에서 존경, 감사, 존중과 도덕적 감정을 느낀다고 적었다. 이 내용은 당시의 주택이나 가구에서처럼 건축이 더 이상 어떤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치장과 과시에 치우쳐 있을 때,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여 부양하고 추진하는 수단을 공기에서 찾아 마침내 날 수 있게 된 비행기처럼, 주택의 문제도 제대로 제기함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주택개론'을 제시할 때 나왔다. 전술된 산업 제품의 경쟁은 품질과 함께 가격이 승패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때 기계에 필수적인 덕목인 경제성은 건축에도 마찬가지여서 개념에서부터 이전의 것과 달라져야 할 현대주거를 주창한 것이다.

또한 무겁고 미숙한 손작업을 기계에 위임했으며 기계를 독창적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능률적인 노예 민족으로 묘사한 것에서도[14] 기계를 보는 실용주의자적 관점이 드러난다. 기계가 마치 노예처럼 조용하고 완벽하게, 주저하지 않고 인간을 위해 일하며 윤이 나고 극히 순수한 가공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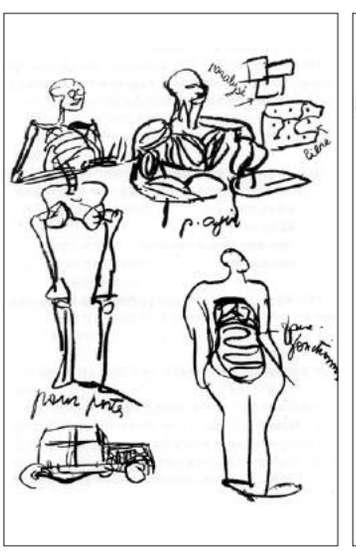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며 건물은 일을 위한 기계"라고 한[15] 르코르뷔지에의 말은 집과 건물이 자신의 역할을 기능적이자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계처럼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가 '살기 위한 기계'라는 말이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명백하게 기능, 효율, 작업, 생산의 개념을 상징하는 '기계'라는 낱말이 포함됐기 때문일 거라고 판단한 데서도[16] 기계에 대한 실용주의적이며 기능주의적인 관점이 확인된다. 그는 꿈에 현실성을 부여한 기계 덕분에 이제 인간은 자유로워진 정신으로 자유롭게 일하고 명령하면 된다고 믿었다.

③ 기능주의자적 관점에서의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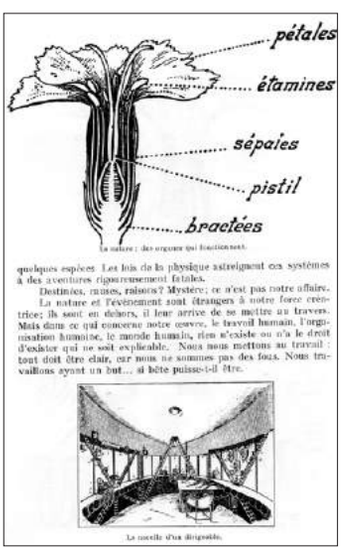
기계를 유기체와 흡사한 움직이는 도구로 보는 기능주의자적 관점은 저서 『프레시지옹(*Précisions sur un état prés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 1930)』에서 르코르뷔지에가 현대주택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지지를 위한 골격, 활동을 위한 근육, 영양을 공급하고 기능하기 위한 내장 같은 인체 그림을 이용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17]

이것은 '새로운 주택의 5원칙(5 points de l'architecture nouvelle)'에 더하여 붙박이 수납장이 겸비된 현대 주택 계획의 해결책을 설명할 때 자동차 구조로 프레임, 차체, 연료 공급과 배기 기관을 갖춘 엔진이 비유되고 이와 함께 생물학적으로 비유될 때 직접 그린 인체 해부도와 함께 제시됐다.

『오늘날의 장식예술(*l'Art décoratif d'aujourd'hui,* 1925)』에서도 조류의 상세 소화기관 그림과 꽃잎의 단면 상세도가 비행선 곤돌라의 내부 그림과 함께 제시됐다.[18] 이는 모든 것이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또한 모든 유기체는 두 극단 사이에서 기능적이며 규격을 확립하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 연관되어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역시 기계를 유기체와 흡사한 움직이는 도구로 본 것이다.



『프레시지옹』에 나오는, 지지를 위한 골격, 활동을 위한 근육, 영양을 공급하고 기능하기 위한 내장을 묘사한 인체 그림



『오늘날의 장식예술』에 나오는 꽃의 단면과 비행선 곤돌라

이렇게 기계를 유기적으로 생각한 르코르뷔지에는 기계 기술의 창조물 또한 순수를 지향하며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의 객체들과 동일한 진화법칙을 따르는 유기체로 생각했다.[19] 경제성에

13)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21 & 138쪽
14)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26쪽
15)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 · 이관석 공역, 동녘, 2004, 244쪽
16)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 · 이관석 공역, 동녘, 2004, 105쪽
17)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 · 이관석 공역, 동녘, 2004, 142~143쪽
18)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200~203쪽
19)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16쪽

의해 지배되고 물리적 필요성에 따라 조절된 조화를 지닌 이 유기체는 양심과 지성, 정확성과 상상력, 과감성과 엄격함으로 전 세계에서 제작된다. 르코르뷔지에는 이제 인간은 기계에 열광하고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데, 이때 기쁨의 감각은 조직화된 존재를 알아보는 데서 온다고 여겼다. 그가 보기에 이처럼 기능주의자적 관점에서 본 기계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놀랍도록 능숙하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며, 행동이 완전하고, 힘세거나 우아한 짐승들처럼 조직화된 존재였다.[20]

기계에 대한 객관적 자세

지금까지 기계의 기능적 · 합리적 · 논리적 속성과 그 결과로 기계가 건축에게 줄 수 있는 덕목과 그 미학을 르코르뷔지에가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신뢰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현대사회를 주도하는 기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 중요성을 깊이 인정하는 만큼 경각심 또한 가져야 함을 잊지 않은 것이다.

1) 기계미학의 관습화 경계와 기계에의 경각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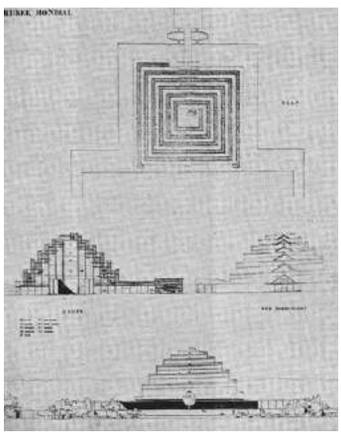
르코르뷔지에는 당시의 자신에게 어울릴 것 같은 '기능주의'나 '합리주의'란 용어를 저널리스트들이나 쓰는 낱말이라며 싫어했다. 건축은 당연히 기능적이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쓰레기일 뿐인데[21] 굳이 무슨 '주의(-ism)'라고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 형태는 합리적 정당화를 필요로 할뿐 아니라 과학으로부터 그 자체적인 법칙을 끌어냈을 경우에야 비로소 정당화 된다는 신념으로서 건축 형태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형태라고 확신한 합리주의도 그에게는 건축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면모일 뿐이었다.

과학적 합리주의 자체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건축사에게 이 과학적 합리주의는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적 · 과학적 원리를 가시화할 때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다." [22]는 미적 감각의 변화를 가져와 건축사가 사유하는 방법론과 구체적 재료 및 기술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적용을 유도한다. 그럼에도 르코르뷔지에가 이 용어들을 경계한 것은 이런 집단적 경향들이 건축 작업에 제한을 가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관습화 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바우하우스를 설립한 그로피우스도 언젠가 '바우하우스 양식(Bauhausstil)'이란 말이 나오면 자신들의 시도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복제 가능한 원형(prototype)을 구상하고 그것을 산업 생산하려는 과정에서 장식이 배제된 매끈한 면으로 이뤄진 단순하고 선적인 형태에 이르러 마침내 바우하우스 양식이 등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관습화를 조심한 것이다.

르코르뷔지에의 능력은 관례나 기존의 행동하고 보는 방식, 판에 박힌 일을 제거하는 데서 비롯됐는데, 이는 건축사들에게 꼭 필요한 소양이라 하겠다. 기계미학이 당시 시대에 뒤처진 건축을 견인하고 회복시키는 좋은 방안임은 분명하지만 유일한 건축적 해법일 수는 없음이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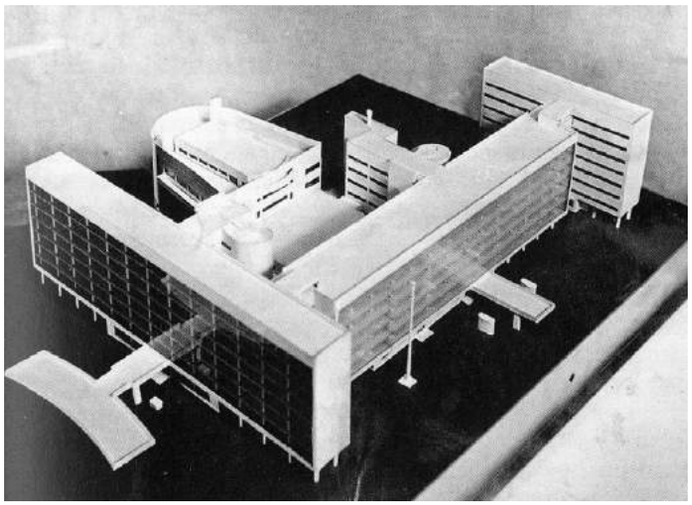
르코르뷔지에는 1929년에 설계한 세계문화센터인 문다네움(Mundaneum)에 속하는 지구라트 형상의 세계박물관(le Musée Mondial)이 역사주의적 · 형태주의적 · 기념비적이라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신즉물성(Neue Sachlichkeit)의 아방가르드들에 대응한 글에서 "기계시대가 예술과 건축을 꼼짝없이 제거해버렸다. 오늘날 신즉물성의 아방가르드들은 '건축'과 '예술'이라는 두 단어를 죽이고 '건설하다'와 '삶'으로 대체했다." 라고 대꾸했다.[23] 실제 그는 이런 비난을 받은 세계박물관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당시로는 가



세계 박물관 계획안, 르코르뷔지에, 19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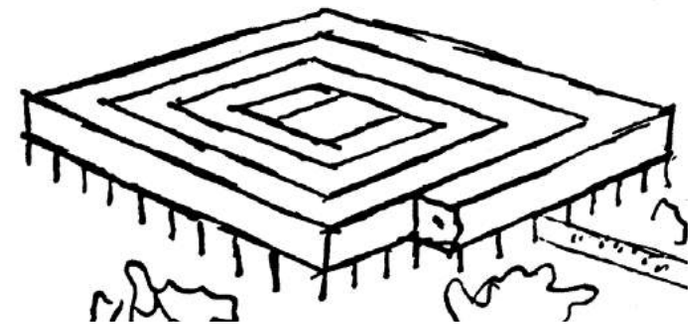
20)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26쪽
21) Ivan Žaknić, The Final Testament of Père Corbu, Yale University Press, 1997, p.115
22) K. Rowland, The Development of Shape, Ginn. 1964, pp.44~65 참조
23) K. Rowland, The Development of Shape, Ginn. 1964, pp.41

장 전위적이라 할 수 있는,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던 유럽 국가로 봐서는 반체제적인 볼셰비키 기관인 소련 협동조합 본부 센트로소유즈(Centrosoyuz Building, 1926~36) 청사를 모스크바에 건설하고 있었다.



센트로소유즈 빌딩 모형 사진, 르코르뷔지에, 1926~36년

비록 세계박물관 계획안의 외형에서 풍기는 형식주의적 기념비성이 공격을 받았지만 이 제안은 당시를 장악했던, 공간성과 특히 동선에서 박물관 건축의 고전성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으며, 이후 평생을 통해 '지속연구(recherche patiente)'를 수행한 '무한성장박물관(Musée à croissance illimitée)' 연구의 출발점이었다.[24]



센트로소유즈 빌딩 모형 사진, 르코르뷔지에, 1926~36년

당시 최신의 건축개념이 충실히 적용된 채 세계박물관 계획안보다 3년 먼저 설계된 센트로소유즈 청사에서는 혹한의 겨울을 견디는 과학적으로 제어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완벽하게 밀봉된, 유리나 석재로 만든 두 피막 사이에 18°C의 공기를 불어넣은 '중화벽'이 제안됐다. 지역과 기후에 구애받지 않는 단 하나의 집, 정확한 호흡을 가진 집으로 구상된 것이다. 상기된 비난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대응은 그가 이어서 거론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신즉물성 공격자들의 선입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최신 개념의 계획안에 당시 기술로는 성취조차 쉽지 않은 '중화벽'을 제안한 진취적인 건축사인데 세계박물관 계획안에 담긴 진정한 건축적 의도는 보지 못하고 외관만으로 오해하는 데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다.

르코르뷔지에는 이렇게 세계박물관과 센트로소유즈 청사라는 판이한 발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1950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 도미니크회 형제단이라는 동일한 건축주에게 일견 감각적이고 비합리적인 형태의 롱샹 순례자 성당에 연이어 직각에 기초한 기하학적 구성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라투레트 수도원을 제안했던 인물이다. 그만큼 그가 특정한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유했음을 보여주는 예다.

롱샹 순례자 성당, 르코르뷔지에, 롱샹, 1950~55년

바그너(Otto Wagner)가 "근대예술은 우리의 세기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새로운 형태를 우리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기능

24) 이 계획안의 건축적 특성은 이관석, 『르코르뷔지에의 무한성장박물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제7호, 2007, 117~128쪽 참조. 박물관 건축은 건축 유형 중 가장 근대화가 늦었던 유형에 속한다.

라투레트 수도원, 르코르뷔지에, 에뵈쉬르라르브레슬, 1953~60년

적이지 않은 어떤 것도 아름다울 수 없다." [25]고 한 주장은 당시의 기능과 미의 근접성과 연관해 확산됐던 근대주의자들의 공통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르코르뷔지에는, "오늘날 재능 있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미학이라는 단어조차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실용적인 기능들에 대한 엄격한 연구로 스스로를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작품을 정제하려 한다. 그것은 수많은 세대를 현혹시켜 공허한 형식적 문구로 우리를 되돌려놓으려는 것이다. 유용한 것은 아름답다. 이 얼마나 공허한 논리인가!" [26]라고 염려하며 기능에 충실함으로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기능이 아름다움에 충분조건이라고 믿지는 않았다. 그의 "미의 역할은 유용성의 역할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다." [27]라는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르코르뷔지에는 자신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의 실수라면 예술 작품을 기계와 닮게 하려고 한 점이라고 지적했다.[28] 타푸리(Manfredo Tafuri)가 러시아 구성주의 중에서 가장 독단적인 '분파'와 이탈리아 미래주의 및 일부 다다이즘(dadaism)이 인공적 '사물'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자연(공업 생산품)을 예술 창작을 위한 기본 소재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모사의 원리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다.[29] 예술이 기계를 닮는 데 관심이 있을 리는 없다. 단지 우리 눈이 순수한 형태들에 매혹됐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한 인간적 감동이라는 목적을 지닌 예술을 위해 순수의 미학, 정확의 미학, 표현 관계의 미학이 우리 정신의 엄밀한 기계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2) 역사와 전통에의 관심

르코르뷔지에가 기계의 긍정적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그 미학에 함몰되지 않은 데에는 역사와 전통에 대한 그의 올바른 인식이 큰 역할을 했다. 그에 대한 여러 그릇된 선입관 중 하나는 그가 누구 못지않은 반(反)전통주의자라는 것이다. 당시 사회가 숭배하고 있었던 장식의 시대적 부적절함을 비판한 저서 『오늘날의 장식예술』의 첫 장인 「성상학, 성상 숭배자들, 성상 파괴자들」에서 마치 성상 파괴자들의 선봉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의 언설로 인해 이런 오해도 무리는 아니다. 르코르뷔지에 자신은 1925년 레스프리 누보관(Pavillion de l'Esprit Nouveau)에서 전시된, 스스로는 파리의 역사적 과거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존중됐다고 생각했던[30] '부아쟁 계획안(Plan Voisin)'으로 인해 전통의 도시 파리를 송두리째 부수려고 한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통적 도시 환경의 파괴자로 오늘날의 삭막한 현대 도시 조성의 주범으로 간주되기도 했다.[31]

그가 사랑한, 보존해야 할 파리의 자랑스러운 아름다움과 정신은 찬란한 과거에 기대어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존치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전의 뛰어난 건축물들이 시대를 선도하며 파리를 만들어 왔듯이, 응고되어 보전과 보수주의로 방어된 기념비처럼 우뚝 서있는 파리를 넘어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파리로 계속 거듭나야 한다고 보았다. 위대한 건축사들의 나라, 훌륭한 건축적 전통의 고향, 혁명적인 건설 기술을 개발했던 나라인 프랑스가 첨두아치(pointed arch)의 자랑을 넘어 이제는 유리와 철근콘크리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의 파리는 1851년부터 1870년까지 나폴레옹 3세에 의해 기획되고 오스

25) Otto Wagner, Architecture moderne et autres écrits, Mardaga, 1980, p.44 & p.48

26) Le Corbusier, Une Maison - un Palais, Bottega d'Erasmo, 1976, p.147

27) Le Corbusier, Défence de l'architecture, L'Architecture d'aujourd'hui, n° monographique sur Le Corbusier et Pierre Jeanneret, 1933, pp.43~44

28)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34쪽

29) M. Tafuri, 『건축의 이론과 역사』, 김일현 역, 동녘, 2009, 67쪽. 타푸리는 고전주의의 자연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의 인간 숭배, 심지어 '이성'까지 대체한, 자본의 무자비한 논리에 의해 창출된 공업 생산품이 역설적으로 인간중심주의의 신념을 파괴했다는 의미에서 공업 생산품을 새로운 (공업적) 자연이라고 했다.

30) Le Corbusier, 『도시계획』, 정성현 역, 동녘, 2003, 292쪽

31) 부아쟁 계획이 지나치게 이론적임을 시인하고 포기한 르코르뷔지에는 1937년 신시대관(Pavillon des Temps Nouveaux)에 다시 전시한 파리 계획안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기념물들을 더욱 확실히 보존했다.

만(G. E. Haussmann) 백작에 의해 실행된 '제2제국 파리개조계획(Transformations de Paris sous le Second Empire)'의 결과물로서 불과 50여 년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는 장점만큼이나 위생과 점증하는 자동차 교통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고전적 도시를 방치하고 개별 건물만을 대상으로 만족스런 거주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알제리 토착민 지구인 카스바(Casbah)를 철거로부터 구하는데, 마르세유의 옛 부두의 훼손을 막는데 애썼고 바르셀로나의 역사적 유물들을 부각시킬 방안에 대해 자문해 주는 등 그의 활동은 역사와 시간 지킴이에도 할애돼 있었다.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 편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그는 1920년대 저서들에서 건축이 무엇인지를 기능 · 조직 · 동선 · 볼륨 · 질서 · 조화 · 자연광 같은 건축의 전통적 키워드들을 사용하며 설명했다. 이 책들에서 또한 아카데미즘에 대한 반대 의사가 빈번하고 격렬하게 드러나지만, 이때도 맹목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고집하는 학풍이나 관료적인 학문 태도인 부정적 의미의 아카데미즘에 반대한 것이다. 학문 연구나 예술 창작에서 순수하게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로서 긍정적 의미의 아카데미즘이나 전통 자체에 대한 생각마저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소수자로서 아카데믹한 주류들과 일생을 통해 싸운 그의 투쟁적 이미지와 함께 이전 건축과의 차별성 때문에 그의 건축이 마치 별종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시대정신에 걸맞은 건축을 추구한 그의 사상은 여전히 유효한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여기서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저서에서 무심코 구별하지 않고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용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 바로 '양식(style)'과 '양식들(styles)'이 그것이다. 단수형 또는 복수형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단어의 단 · 복수형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않으면 해석은 모호해지고 문맥은 어색해진다. 르코르뷔지에는 자신의 기술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단수의 양식(style)은 긍정적 의미로, 복수의 양식들(styles)은 부정적 의미로 확실히 구분해 썼다. 보편적으로 느껴지고 인정된 완전한 상태인 단수의 양식이 한 시기의 독특한 원리를 뜻하는 반면에, 복수의 양식들은 지난 세대의 여러 양식들을 시대적 자각 없이 유행처럼 마구잡이로 혼용하는 당시의 복고주의, 절충주의를 개탄할 때 쓴 것이다. 르코르뷔지에는 20세기에 정당성 없이 재발된 루이 16세 양식을 비난하면서도 본래의 루이 16세 양식이 아름답고 매우 눈에 띄며 18세기 말엽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 동의했다.[32] 당대의 시대정신에 의거한 산물을 존중한 것이다. 그에게는 시대의식이 결여된 채 과거 모방에 안존하는 행태가 문제였다.

르코르뷔지에의 민속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 또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그의 경애심과 유관하다. 그는 도처에 존재하는 각국의 민속 공예품들을 과거 문명의 때 지난 산물로 경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언제나 깨끗하고 간결하고 짧고 경제적이고 강렬하고 필연적임을 즉각 이해하고 느꼈으며, 정확하게 의도된 감동을 경험했다.[33] 그는 건축에서도 유사하게 단순 간결함, 경제성, 강렬함 같은 속성을 상상했을 것이다. 건물을 건축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건축에 투여되는 의도도 민속 문화의 그것처럼 명확해야 했다.[34] 그가 전통 민속 문화를 높이 인정한 것은, 누군가 재능 있는 사람이 제시한 것이 군중을 감격시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오랜 기간 사용하고 수정하여 인간의 자원이자 감동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련되어졌으며, 전달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명확해야 했다. 그것은 정화되었고, 의미는 전해내릴 만하다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시간과 대중에 의해 순수해진 성취물인 민속 문화는 매우 강력하여 우리를 즉시 반응하게 하는데, 거기에 지성과 마음을 위한 가장 넓은 장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5]

르코르뷔지에는 전통을 과거의 답습이나 고수가 아닌, 가장 혁신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고,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가장 믿음직한 지침으로 인정했다. 과거를 향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으로 전달(transmission)을 전통의 진정한 의미로 생각한[36] 그에게 전통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전달 매개체였다. 그는 과거에 대한 경의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랑과 존경심을 느끼는 것과 같은 태도이자 창조적인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릴 때부터 토착적인 것들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 과거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현재와의 우열을 가리는 비교대상이 아닌 것이다.

32)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 · 이관석 공역, 동녘, 2004, 67쪽
33)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49~50쪽
34) 위의 책, 205쪽 &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85쪽
35)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51쪽
36) Le Corbusier,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1, 58쪽

우리가 관심을 갖는 1920년대에 그는 새로움 자체를 목적 가치로 삼는 아방가르드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에게 새로움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시대정신에 맞춰 업데이트한 결과였다.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은 분명 새로웠지만, 그는 새로움만을 목적으로 삼기에는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역사에 매우 진지했으며, 지칠 줄 모르는 탐구의 영역은 넓었고 그 내용은 깊었다. 그에게는 시대정신의 자각과 근본에의 침잠이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나란히 굴러야 할 수레바퀴 같은 사이였다. 기계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고전과 전통의 굳건한 기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나가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현실생활 속으로 맹렬히 진입한 기계의 놀라운 능력과 모습이 부각되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실존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보는 르코르뷔지에의 혜안이 그로 하여금 기계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 새로운 건축이 본받아야 할 교훈을 다방면에서 이끌어내게 했음을 볼 수 있었다. 기계에 내재된 특성을 포착해 새로운 건축이 본받아야 할 덕목으로 삼은 것이다.

르코르뷔지에는 기계를 이상적인 완벽한 체계로, 시간과 일 및 에너지를 절약해주고 힘든 육체노동을 위임했으며 경제성이 중요한 대상으로, 유기체와 흡사한 움직이는 도구로 여김으로써 기계를 보는 이성주의자적 · 실용주의자적 · 기능주의자적 관점을 드러냈다. 기계에 대해 이와 같은 총체적 관점을 가지고 주시해 누구 못지않은 속 깊은 견해를 보인 그가 당시 일부에서 나타난 기계를 향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수용에 경종을 울렸다는 사실 또한 주목된다. 지나친 기능주의나 그것이 비록 기계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특정 미학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근대건축의 대가로 인정받는 르코르뷔지에가 지녔던 고전과 전통에의 진한 애정과 조예는 기계가 건축에게 보여준 커다란 가능성을 깊이 이해하여 본받고 전파하려 애썼던 그로 하여금 지나치게 기계에 집착하지 않고 건축사로서의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됐다. 기계의 속성과 기계에 함축된, 그것을 만드는 인간이 사용하는 선택, 의도, 의지와의 정열적인 연동(連動)을 신뢰하면서도 감성과 지성이 아슬아슬한 평형점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축사의 본분을 잊지 않은 것이다.

참고문헌

1. 이관석, 「르코르뷔지에의 무한성장박물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제7호, 2007
2. 이관석,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저서에 담긴 건축 정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9호, 2008
3. 이관석, 「1920년대 르 꼬르뷔지에의 기계에 대한 태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7권 제3호, 2011
4. BEHNE, Adolf, Der moderne Zweckbau, Drei Masken Verlag, 1926; English Translation by BLETTER, R. H., 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for the History and Art and the Humanities, 1996
5. CHARBONNIER, G., Le monologue du peintre, vol.2, Édition René Juillard, 1966
6. CLADEL, Gérard, Le Corbusier et le défi machiniste, in Le Corbusier, le passé à réaction poétique, Catalogue de l'exposition présentée à l'Hôtel de Sully, 1988
7. Le Corbusier, Almanach d'architecture moderne, 1926
8. Le Corbusier, Défence de l'architecture, L'Architecture d'aujourd'hui, n° monographique sur Le Corbusier et Pierre Jeanneret, 1933
9. Le Corbusier, Une Maison - un Palais, Bottega d'Erasmo, 1976
10. Le Corbusier,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1
11.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2. Le Corbusier, 『도시계획』, 정성현 역, 동녘, 2003
13.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 · 이관석 공역, 동녘, 2004
14.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5. OZENFANT, A. & JEANNERET, C.-É., Après le Cubisme, éditions des Commentaires, 1918
16. REICHLIN, Bruno, "L'utile n'est pas le beau" in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17. ROWLAND, K., The Development of Shape, Ginn, 1964
18. TAFURI, M., 『건축의 이론과 역사』, 김일현 역, 동녘, 2009
19. WAGNER, Otto, Architecture moderne et autres écrits, Mardaga, 1980
20. ŽAKNIĆ, Ivan, The Final Testament of Père Corbu, Yale University Press, 1997

이사회 개최 현황

제7회 이사회

2014년 제7회 이사회가 지난 7월 16일 오후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세종특별시건축사회 설치 및 회칙(안) 승인의 건',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의 건', '건설기술자 데이터 송 · 수신 및 증명발급 프로그램 추가 개발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 제1호 : 세종특별시건축사회 설치 및 회칙(안) 승인의 건
  - 세종특별시건축사회를 설치키로 하고, 회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의 건
  - 인천광역시건축사회를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로 선정함.
- 제3호 : 건설기술자 데이터 송 · 수신 및 증명발급 프로그램 추가 개발의 건
  - 건설기술자 데이터 송 · 수신 및 증명발급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기로 하고, 예산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소요예산 : 약 5,000만원
    - 일반회계 임의적립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차기 총회에서 추인하기로 함.
  -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수정토록 비상근부회장 1인에게 위임함.

| 기타사항 |

-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건축사의 업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함.
  - 국토부에 기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국토부 및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다시 한 번 협회의 의견을 전달.
  -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처방안 강구.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대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점검의 우려가 있고, 비용 대비 책임이 과도한 문제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 ·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건축영화제 TF

제1회 건축영화제 TF가 지난 6월 18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건축영화제 행사시행에 관한 건
  - 행사일시는 잠정 10월 28일~11월 2일까지로 하며, 프로그램 선정, 마케팅, 인쇄물, 홍보 등은 맥스무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진행하기로 함.

제2회 주거복지위원회

제2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9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년도 주거복지세미나 테마 선정 및 개최 계획에 관한 건
  - 2014년도 주거복지세미나 주제는 각 위원들이 준비해온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클러스트(끼워넣기) 개념의 '주택 속의 주택'으로 선정함.
  - 세미나 개최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외부참여 대상 및 홍보 계층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SH공사 등의 연구원 및 각 구청의 실무자로 정함.

제1회 정보전산위원회

제1회 정보전산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0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정보전산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
  - 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개최(연내 4회 정도 개최 예정)하기로 함.
  - 협회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할을 분담, 운영하도록 함.
- 제2호 : 홈페이지 관련 협의의 건
  - 웹 접근성 의무화로 인한 규제로 인해 한계가 있으므로 검토 후 가능한 부분은 수정키로 함.
  - 협회 홈페이지에서 타 시스템으로 이동시 로그인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솔루션 도입 예정.
- 제3호 : 정보전산 충당금 적립의 타당성 및 적립 방안의 건
  - 지난 몇 년간의 협회 전산예산을 참고하여 내부적으로 근거 자료를 작성 후 다음 회의에 다시 협의하기로 함.
- 제4호 : SNS를 통한 정보전달 방안의 건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SNS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후 다음 회의에 다시 협의하기로 함.
- 제5호 : 정보전산팀 인력 충원에 관한 건
  - 지속적인 언급을 통해 인원 충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제6호 : 전산 기계실 방재 대책에 관한 협의의 건
– 현재 전산 기계실에 스프링클러와 포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사용 시 전산장비의 훼손이 심화되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후 추진하기로 함.
● 제7호 : 건축자재정보센터(ArchiDB)의 활성화 방안의 건
– 건축자재정보센터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후 다음 회의에 다시 협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 협회 서버의 고장 시 안정성 보장이 불가하므로 수리비용 대비 교체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협회 정보전산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각 업무부서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장비 및 솔루션을 체크하여 정보전산 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제2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제2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8일 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합격자 선정에 관한 건
–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48명을 선발하고, 예비합격자 12명을 선발하기로 함.
– 선발기준 중 건축설계분야 실무경력은 설계, 공사, 감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세부 선발기준은 정량적인 수치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지원서에 지원동기란을 두거나, 면접을 시행하여 정성적 수치도 추가하기로 함.
● 제2호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방안 검토의 건
– 학사관리세칙에 국토부장관상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등 상벌규정에 대하여 추가하기로 하고, 합격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출결 및 수료조건에 대해 공지하기로 함.
– 예산운영계획(안)은 협약서에 준한 내용이므로 그대로 시행하며, 차후 예산 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거쳐 회장 승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에 예산전용승인 신청을 하기로 함.
● 제3호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진행에 관한 건
– 한옥스튜디오는 설계와 병행하여 이론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국내 답사지인 운현궁에서는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문의해보기로 하고, 덕수궁 답사 시 오전에 관련 이론강의를 실시하여 답사하는 데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정기학술세미나의 기조발제 내용은 전봉희 위원이 재정리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공개 세미나로 진행하여 포스터 제작 등 외부 관련 기관에 적극 홍보하기로 함.
– 치목실습은 최우성 위원이 커리큘럼을 구성하기로 하고, 실습이 가능한 외부교육기관을 섭외 및 협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 입교식에서는 교육소개 등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하고, 특강 후 리셉션을 준비하여 교육생 간 상호교류 및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갖기로 함.

건축계 소식

김영수 회장, '시설안전포럼 출범식 및 국민안전 결의대회' 참석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7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설안전포럼 출범식 및 국민안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김용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등을 만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수 회장, 협동조합 관련 간담회 참석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7월 24일 열린 '협동조합사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사와 관련된 활발한 협동조합 설립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협회 임원진 및 각 지역 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회장은 "협동조합을 통해 건축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업역을 창출할 수 있다. 아직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활발한 협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좋겠다."고 밝혔다.

2014 제9차 해외 젊은 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

터키건축원 및 터키 안탈리아주 건축분원은 '해외 젊은 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공공에서의 개별 자유 공간'이며, 행사는 유네스코 규정에 따른 해외 젊은 건축사대상 아이디어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인 1975년 이후 출생한 건축사로, 참가비는 무료다. 9월 8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이며, 수상작 발표는 9월 22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협력팀(02-3415-6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6호 : 전산 기계실 방재 대책에 관한 협의의 건
– 현재 전산 기계실에 스프링클러와 포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사용 시 전산장비의 훼손이 심화되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후 추진하기로 함.
● 제7호 : 건축자재정보센터(ArchiDB)의 활성화 방안의 건
– 건축자재정보센터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후 다음 회의에 다시 협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 협회 서버의 고장 시 안정성 보장이 불가하므로 수리비용 대비 교체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협회 정보전산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각 업무부서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장비 및 솔루션을 체크하여 정보전산 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제2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제2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8일 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합격자 선정에 관한 건
–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48명을 선발하고, 예비합격자 12명을 선발하기로 함.
– 선발기준 중 건축설계분야 실무경력은 설계, 공사, 감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세부 선발기준은 정량적인 수치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지원서에 지원동기란을 두거나, 면접을 시행하여 정성적 수치도 추가하기로 함.
● 제2호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방안 검토의 건
– 학사관리세칙에 국토부장관상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등 상벌규정에 대하여 추가하기로 하고, 합격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출결 및 수료조건에 대해 공지하기로 함.
– 예산운영계획(안)은 협약서에 준한 내용이므로 그대로 시행하며, 차후 예산 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거쳐 회장 승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에 예산전용승인 신청을 하기로 함.
● 제3호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진행에 관한 건
– 한옥스튜디오는 설계와 병행하여 이론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국내 답사지인 운현궁에서는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문의해보기로 하고, 덕수궁 답사 시 오전에 관련 이론강의를 실시하여 답사하는 데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정기학술세미나의 기조발제 내용은 전봉희 위원이 재정리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공개 세미나로 진행하여 포스터 제작 등 외부 관련 기관에 적극 홍보하기로 함.
– 치목실습은 최우성 위원이 커리큘럼을 구성하기로 하고, 실습이 가능한 외부교육기관을 섭외 및 협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 입교식에서는 교육소개 등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하고, 특강 후 리셉션을 준비하여 교육생 간 상호교류 및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갖기로 함.

건축계 소식

김영수 회장, '시설안전포럼 출범식 및 국민안전 결의대회' 참석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7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설안전포럼 출범식 및 국민안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김용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등을 만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수 회장, 협동조합 관련 간담회 참석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7월 24일 열린 '협동조합사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사와 관련된 활발한 협동조합 설립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협회 임원진 및 각 지역 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회장은 "협동조합을 통해 건축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업역을 창출할 수 있다. 아직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활발한 협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좋겠다."고 밝혔다.

2014 제9차 해외 젊은 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

터키건축원 및 터키 안탈리아주 건축분원은 '해외 젊은 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공공에서의 개별 자유 공간'이며, 행사는 유네스코 규정에 따른 해외 젊은 건축사대상 아이디어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인 1975년 이후 출생한 건축사로, 참가비는 무료다. 9월 8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이며, 수상작 발표는 9월 22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협력팀(02-3415-6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8월초순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412	6,412	74	148	8	24	6,494	6,584	1,857	1,857	231	462	58	174	25	100	16	109	2,187	2,702	8,681	9,286
서울	973	973	22	44	0	0	995	1,017	919	919	123	246	38	114	12	48	11	68	1,103	1,395	2,098	2,412
부산	557	557	8	16	2	6	567	579	117	117	29	58	4	12	2	8	1	7	153	202	720	781
대구	556	556	12	24	5	15	573	595	71	71	12	24	3	9	3	12	0	0	89	116	662	711
인천	305	305	3	6	0	0	308	311	64	64	7	14	1	3	0	0	0	0	72	81	380	392
광주	238	238	1	2	0	0	239	240	51	51	6	12	1	3	2	8	1	5	61	79	300	319
대전	270	270	5	10	0	0	275	280	36	36	9	18	3	9	1	4	1	14	50	81	325	361
울산	205	205	4	8	0	0	209	213	22	22	3	6	0	0	0	0	0	0	25	28	234	241
경기	912	912	2	4	0	0	914	916	277	277	13	26	6	18	1	4	0	0	297	325	1,211	1,241
강원	203	203	2	4	0	0	205	207	29	29	2	4	0	0	1	4	0	0	32	37	237	244
충북	239	239	2	4	0	0	241	243	44	44	4	8	2	6	2	8	1	9	53	75	294	318
충남	317	317	1	2	0	0	318	319	64	64	8	16	0	0	1	4	0	0	73	84	397	403
전북	285	285	4	8	0	0	289	293	30	30	4	8	0	0	0	0	0	0	34	38	323	331
전남	222	222	0	0	0	0	222	222	24	24	1	2	0	0	0	0	1	6	26	32	248	254
경북	454	454	4	8	1	3	459	465	44	44	5	10	0	0	0	0	0	0	49	54	508	519
경남	525	525	4	8	0	0	529	533	42	42	4	8	0	0	0	0	0	0	46	50	575	583
제주	151	151	0	0	0	0	151	151	23	23	1	2	0	0	0	0	0	0	24	25	175	17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9,286	100%
서울	2,412	25.97%
부산	781	8.41%
대구	711	7.66%
인천	392	4.22%
광주	319	3.44%
대전	361	3.89%
울산	241	2.60%
경기	1,241	13.36%
강원	244	2.63%
충북	318	3.42%
충남	403	4.34%
전북	331	3.56%
전남	254	2.74%
경북	519	5.59%
경남	583	6.28%
제주	176	1.9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4년 8월초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501	3,302
서울	3,939	2,163
부산	777	135
대구	685	90
인천	387	9
광주	308	70
대전	364	57
울산	237	45
경기	1,456	159
강원	262	26
충북	327	83
충남	385	80
전북	338	37
전남	274	74
경북	492	35
경남	609	73
제주	178	54
기타	1,483	112
비고	회원 : 9,126 / 비회원 : 3,375	대학 : 3,034 / 대학원 : 268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584	2,702	9,286	
비율	70.9%	29.1%	100%	
사무소수	6,494	2,187	8,681	
비율	74.81%	25.19%	100%	